은평, 그 곳에 살다

개청 40주년
은평구 스토리텔링
사진집

은평구 개청 40주년

인사말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79년 10월 1일 개청한 은평구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구민과 함께 걸어온 길과 그 이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 삶의 지표를 공고히 다지는 의미에서 '개청 40주년 기념 스토리텔링 사진집' 「은평, 그 곳에 살다」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은평의 성장과 변화의 시간들을 '구민의 시각'에서 담아낸 사진집입니다. 우리 마을에 오랜 기간 터를 잡고 거주해오신 토박이 어르신에서부터 푸르른 꿈과 희망찬 삶을 찾아 새로이 둥지를 튼 청년까지, 가까운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이야기수집단'이 모여 은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현대화된 건물과 넓고 깨끗하게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 논밭으로 둘러싸인 초가집 풍경과 머리에는 바구니를 이고, 등에는 아기를 업고 먼지 날리는 흙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모습과 같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기증받고 그 안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색이 바랜 접착식 앨범에서 하나하나 떼어낸 사진부터 디지털 파일로 보관된 사진까지 은평의 옛 모습과 현재를 담아내는 과정이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흔적을 찾아 나선 시간여행을 통해 우리 역사와 삶의 기록을 생생히 담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오늘이 바로 미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어린 시절 아름답게 채색되었던 기억을 되새겨보고 더 나아가 은평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 달라질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기나긴 여정에 동행해 주신 '이야기수집단'과 귀중한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주신 은평 가족 여러분, 그리고 관내 학교를 비롯해 사진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민 모두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김미경

순서

은평의 유래와 역사 013
서울의 서쪽 관문
수색역과 신작로 033
일제 강점기의 은평 041
광복과 한국전쟁 057
불광지구/역촌지구 대단위
토지 구획정리사업 063
은평의 농업과 대장간,
그리고 수색동 연탄공장 075
은평을 사통팔달로 만든 도로들 085
은평의 전통시장들 093
최초의 주택조합단지 기자촌 107
언론인과 문인, 그리고 지사들 111
1979년, 은평구 개청 119
기념비적인 해, 1985년 127
단독주택이 많았던 전원도시 은평 131
1990년대의 변화 139
불광천의 대변신 179
은평뉴타운 이야기 187
한(韓)문화의 메카 은평 195
다양한 면모를 자랑하는 은평구 도서관 203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209
은평구의 보물, 북한산 213
도시재생 으뜸 은평 산새마을 217
한반도 신경제 중심지역, 수색역세권 개발 223
사회혁신과 창의공원으로 거듭난 혁신파크 229
시민참여도시 은평 233

장

1
서울시 이전의 은평

2
은평의 서울시대

3
은평구의 탈바꿈

4
비상하는 은평의 21세기

프롤로그 007
부록 1 서울미래유산 240
부록 2 백년가게 243
부록 3 이야기수집단 및 인터뷰이 244
에필로그 239
사진 기증 및 협조기관 246
참고문헌 247
사진색인 248

프롤로그

‘지역’은 자연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특정한 관점에서 분류를 해야만 ‘땅’은 비로소 ‘지역’이 되고 좀 더 딱딱한 표현을 쓰면 ‘행정구역’이 된다. 은평구 역시 마찬가지다. 1979년 10월 1일, 서대문구에서 분리 독립하면서 은평구가 탄생했다. 올해로 은평구가 태어난 지 40주년이 된 것이다. 인간에게 ‘40’이란 숫자는 청년기를 지나 중년기로 접어드는 상징적인 숫자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은평의 땅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땅에서 살면서, 일하고 즐기고 공부하며, 때로는 불의에 맞서 싸우기도 했던 인물들의 흔적을 ‘40’이란 숫자에 가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은평구 탄생 40주년 기념을 넘어선 가치들을 담고자 한다.

개청 40주년 기념 스토리텔링 사진집 『은평, 그곳에 살다』는 자발적으로 모인 은평구민으로 구성된 ‘이야기 수집단’이 은평에서 살아온 이들을 직접 만나 모은 이야기와 사진을 중심에 두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또는 40년 넘게 은평구와 주민들이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온 이야기와 그 이야기들이 담긴 사진은 은평구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내일이다. 오늘의 은평구를 만든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 은평구민 각자의 시간 속에 은평의 시간을 연결하고 재해석하며, 더 즐거운 이야기들이 피어나는 내일을 그려보는 색다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은평에 살아서 굉장히 친숙하고 정겨운 동네라는 느낌이 많아요. 은평구는 평생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새로 이사를 오셔도 계속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앞으로도 은평에 계속 살아갈 예정인데 이게 저희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위의 세대,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도 그렇고, 앞으로 학생들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정주성이 참 강한 지역인 것 같아요.

——— 조용민 갈현동

저는 은평뉴타운에서 은평뉴타운 구민인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은평뉴타운에 살고 있어요. 아내의 집안은 매년 1월 1일에 북한산에 올라가 일출을 봅니다. 집안의 전통이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결혼하고 올해 처음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습니다. 집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 조병권 갈현동

걷기 좋은 불광천, 등산하기 좋은 앵봉산이 있어 은평이 좋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은 여름에 놀러가기 좋고, 계곡도 있습니다. 한옥마을 쪽도 좋아해요. 연신내에는 먹을 거 놀 거 살 거 웬만한 것은 다 있어 편리합니다.

——— 전예슬 갈현동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역촌역에 내려 골목을 한참 돌아 들어가면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역촌동 옛집이 나오거든요. 아주 가끔 그 길을 걸을 적마다 옛 집이 그대로인 채 남아있어 저 집에 누군가 살고 있겠지 하는 감회에 젖어요. 부모님은 응암동을 거쳐, 신사동에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은평구를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도 둘째 오빠가 북한산 한자락 불광동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요. 공기 좋고 살기가 좋은 곳이라 다른 곳은 싫다고 머리가 새하얀 팔십대 노인이 되어 은평을 지키고 있지요.

——— 노향림 향토자료中

은평에 산 지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이만큼 키우기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은평이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은평에 동네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커뮤니티들이 많은 걸 알면서도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동네살이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동네 살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도 해보고 싶고요.

——— 권성하 구산동

1 서울시 이전의 은평

은평의 유래와 역사 013
서울의 서쪽 관문 수색역과 신작로 033
일제 강점기의 은평 041

1

은평의 유래와 역사

은평 땅은 삼국시대 이전에는 마한에 속했고, 삼국시대 초중기에는 백제에 속했지만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568년(혹은 569년), 신라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우면서부터였다. 신라는 은평 일대를 새로운 땅이라 하여 '신주'라고 불렀고,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로 부르다가, 757년 경덕왕 7년에 '한주'로 고쳤다. 그리고 서울 지방에는 '한양군'을 설치했는데 서울의 옛 이름인 '한양'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원효대사가 삼각산을 등에 진 땅에 삼천사를 창건하여 은평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가 자리잡았다. 고려시대에는 '한양군'을 '양주'라 고치고, 1087년 문종 21년에 '양주'를 '남경'으로 승격시켜 '서경'(평양)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후 1308년 충렬왕 34년에 '한양부'로 개칭하였다. 삼천사와 인접한 진관사는 고려시대에 개창하였다. 당시 이름은 신혈사로 진관(津寬) 스님이 혼자 수도하는 작은 절이었는데, 이 스님이 이 곳에서 고려의 실권자였던 천추태후로부터 훗날 고려 최고의 명군이 될 현종에 오르는 대량원군을 살려냈다. 이후 현종은 신혈사 터에 큰 절을 세우고 대사의 이름을 따서 진관사라 하였다. 그 뒤 진관사는 임금을 살린 은혜로운 장소로서 여러 왕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

1
서울시 이전의 은평

•
은평의 유래와 역사

2

3

4

1 ---------- 은평 전경 / 1968 / 차철수 기증
2 ---------- 삼각산 적멸보궁 삼천사 / 1996 / 삼천사 제공
3 ----------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보물 제657호) / 1995 / 삼천사 제공
4 ---------- 진관사 / 2011

1
서울시 이전의 은평

•
은평의 유래와 역사

5

6

5 ---------- 진관사 황성기독교청년회 하령회 / 1910 / 진관사 제공
6 ---------- 진관사 / 1950 이전 / 진관사 제공

7

1394년 조선 태조 3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천도하면서 '한성부'로 이름을 바꿨으며, 서울 지역은 5부 52방으로 개편했는데, 지금의 구(區)에 해당하는 5부(동, 서, 남, 북, 중) 중 은평 지역은 북부의 산하 반송방 밖에 있던 연은면에 속해 있었다. 당시 한양 주변은 조선판 그린벨트제도라고 할 사산금표제를 실시하여 개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진관동 백화사 입구에 서 있는 경천군 이해령 사패지 송금비가 지금도 남아있어 그 때를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은평 지역의 인구는 사찰 주변의 사하촌과 의주로 부근을 제외하면 아주 적었다.

하지만 당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국으로 가는 길이자 두 번째로 큰 도시 평양으로 가는 제1로, 즉 의주로가 은평 지역을 통과했다. 이 길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북경과 한양을 오가는 사신들을 위한 영은문과 모화관, 홍제원, 연서역 같은 중요한 시설이 들어섰다. 현 불광역에는 작은 고개가 있었는데 이 곳을 경계로 북으로는 의주까지, 남으로는 부산까지가 똑같이 1,000리가 된다 하여 일명 양천리(兩千里)고개라고 하였다. 최근 표지석을 세워 이를 기리고 있다.

연신내 역을 넘어가는 고개를 지금도 '박석고개'라고 하는데, 사신 행렬이 길을 잘 지나가라고 박석을 깔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파발마가 지나갔기에 과거 은평에는 구파발동이 있었으며, 말이 은평구의 상징 캐릭터가 되었고, 1996년부터 파발제가 열렸다. 또한 209미터 높이의 봉산에는 봉화대가 있어 무악재 봉수대에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박석고개 서낭당이 사신서낭당이라고 중국에서 사신이 오게 되면 구파발에서 말을 재우고 편자를 갈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그 전에 박석고개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사신서낭당에서 저기 임금이 있는 경복궁을 박석고개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그 서낭당이 파발제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존시켜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소방서 옆에 있는 것을 보존하게 된 거지요. 지금은 내 친구 누이동생이 나이 70이 넘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8

이 마을 전체가 산신제를 음력 10월1일에 지내요. 저기 메디텍고등학교 뒤에 산 속에서 지내요. 산신제는 이 진관동 주민들이 편안하고 질병 없이 잘 지내게 해달라고 삼각산을 향해서 제를 올리는 거에요. 옛날 방식대로, 몇 백 년 된 놋그릇도 내가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놓고 주관했지요. 축문도 이 동네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내가 다 보존해서 산신제와 파발제도 지냈어요.

——— 김주환 진관동

9

7 ---------- 양천리 유래비
8 ---------- 경천군 이해령 사패지 송금비 / 은평문화원 제공
9 ---------- 진관동 산신제 / 김주환 기증
10 ---------- 진관동 산신제 / 김주환 기증
11 ---------- 진관동 산신제 / 김주환 기증

세종대왕 재위시절, 진관사는 집현전 학자들의 사가 독서당 역할을 하면서 한글창제의 숨은 무대가 되기도 했으며, 세종의 여섯째 아들 화의군 이영의 묘역이 인근에 자리잡았다.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이 인근에서 벌어졌을 때, 불광동의 여장부(여성 의병장) 밥할머니는 인근 마을의 부녀자들을 이끌고 산성으로 들어가 치마 위에 덮치마를 만들어 두르고 주변의 돌들을 치마폭에 담아 날라 행주치마의 설화를 낳았다. 병자호란 때에는 청군의 침입로였으며, 그 사이에 벌어진 인조반정의 중요한 현장이 되기도 했다.

1457년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훗날 덕종으로 추존)의 무덤이 들어서면서 동구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왕실묘역인 서오릉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고양시이긴 하지만 은평구 바로 옆에 조성되었다. 현대에 와서 서오릉은 은평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소풍 장소가 되었고, 수많은 은평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0

11

은평구에서 제가 위로받는 장소는 서오릉이에요. 은평구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 서오릉으로 소풍을 가요. 저는 12년 내내 갔어요. 지금은 집 가까운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죠. 새벽 5시 40분에 서오릉에 가면 어르신들 30~40명이 모여 계셔요.

——— 김영미 응암동

서오릉에는 5기의 왕릉이 있잖아요. 그 능마다 사연이 있죠. 서오릉에 가서 역사공부를 많이 했어요. 태정태세문단세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게 다 쓰여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역사교육에 정말 좋은 데예요.

——— 서성희 응암동

은평 지역은 소풍을 서오릉 아니면 진관사로 갔었습니다. 어릴 적 서오릉 구르기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 서애란 대조동

12

13

14

15

12 ---------- 서오릉: 불광초등학교 소풍 / 1967 / 권혜숙 기증
13 ---------- 서오릉: 고갯길을 넘어가는 학생들 / 1961.06 / 차철수 기증
14 ---------- 서오릉 / 1959 / 최준호 기증
15 ---------- 서오릉 가는 길: 궁말앞 길(현 갈현동 152번 종점 구산 네거리 주위) / 1961.06 / 차철수 기증

16

세조는 이듬해에 절을 지어 맏아들의 넋을 위로해주라고 명했다. 왕명을 받들어 1년 만에 완공해 1459년 절을 창건하니, 이를 정인사(正因寺)라 했는데 훗날 수국사(守國寺)로 이름이 바뀌었다.

증산동에는 세종 시기에 나주 나씨가 정착하여 현재 28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960년대 중반까지도 100여 가구가 살며 증산동 인구의 95%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0여 가구에 불과하다. 조선왕실의 크고 작은 살림을 담당했던 궁녀와 내시, 그리고 역관들의 무덤도 은평 일대에 즐비했었고, 특히 조선 제일의 역관 가문인 우봉 김씨의 집안 묘지인 이말산도 진관사 부근에 있으며, 역관 가문인 인동 장씨 출신 장희빈도 불광동에서 태어났다. 은평뉴타운 공사 당시 이 무덤들이 많이 발굴되어 재조명을 받았다.

17

18

16 ---------- 금불초가 만개한 수국사 황금법당 풍경 / 2019.06 / 수국사 제공
17 ---------- 증산동 205-8 초가집 안마당 우물 / 1970 / 나창균 기증
18 ---------- 증산동 205-8 초가집 사랑채 / 1970 / 나창균 기증

이말산이 조선왕실에서 평생 봉직하다가 돌아가신 궁인들이 묻혀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성당은 거기와도 관련되어 있고, 진관사와도 연관이 있어요. 이 분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려면 진혼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조선왕실에서 후원을 하고 동시에 나라와 지역민들의 태평을 기원했던 곳이죠. 다른 곳은 없어지고 여기만 유일하게 남았어요.

——— 양종승 은평구 샤머니즘박물관장

19

17세기 후반 이래 흉년이 계속되고 농촌사회가 붕괴되면서 전국의 유민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는데, 이런 현상은 19세기까지도 계속되었다. 서슬퍼런 사산금표제도 약화되어, 유민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 한양 인근에 정착하면서 자연히 은평 일대를 포함한 한양 서쪽의 인구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1727년(영조 3년), 백련산의 능선까지였던 종래의 성저십리 경계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모래내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정식으로 한성부가 관할하기 위해 1788년(정조 12년)에 연희방, 연은방, 상평방을 설치했다. 은평구 지역은 연은방, 상평방 지역에 해당되었으며 '은평'이라는 고유명사는 이 연은방과 상평방에서 한 글자씩 따라 명명된 것이다. 19세기 후반에는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세상을 떠난 금성대군을 모시는 금성당이 세워졌다.

19 ---------- 금성당 / 2006 / 양종승 기증
20 ---------- 금성당 사랑채 / 2015.01 / 양종승 기증
21 ---------- 금성당 내부 / 2004 / 양종승 기증
22 ---------- 금성당 / 2015 / 양종승 기증
23 ---------- 금성당 / 2015 / 양종승 기증

20

21

22

23

24 | 25
26 | 27

28

24 ---------- 나창균씨 조모님 회갑연 / 나창균 기증
25 ---------- 나창균씨 조부모님 / 나창균 기증
26 ---------- 중종 숙의 나씨묘를 증산동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이장하고 난 후 제사 지내는 모습 / 1969 / 나창균 기증
27 ---------- 전주이씨 환갑기념촬영(나창균 생가 앞마당) / 나창균 기증
28 ---------- 추석명절 나창균씨댁 제사(단체로 절하는 모습) / 나창균 기증

오백 년이 넘도록 마르지 않은 우물터와 신제단이 있는 증산동 반홍산. 그곳에선 수백 년 전부터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반홍산 산신제'가 열린다.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반홍산 정상아래 반홍산신제단에서 행해지는 산신제는 그 주신이 반홍산신으로, '부정(不淨)이 없는 사람'을 제관으로 정하고, 의례는 유교 예식에 따라 경건히 진행된다. 증산동 주민들은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계승하고자 매년 정성스레 제를 준비하고 모시며, 동네의 액운이 소멸되길 기원하고 있다.

29

30

31

29 ---------- 증산동 반홍산 산신제 / 2017.11.18
30 ---------- 증산동 반홍산 산신제 옛모습
31 ---------- 반홍산 우물에 대해 설명하는 나창균씨

은평 지역은 늘어나는 성 안팎의 인구가 소비하는 채소와 화초를 공급하기 위해 상업작물 재배지역으로 바뀌어갔다. 은평 토박이 어르신들은 20세기 중반까지도 다양한 채소와 과일, 화초를 인접한 영천시장이나 옥인, 금천, 남대문시장에 공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녹번 고개는 지금도 산골고개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는데, 산골이라는 빤짝거리는 광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광물은 접골용 약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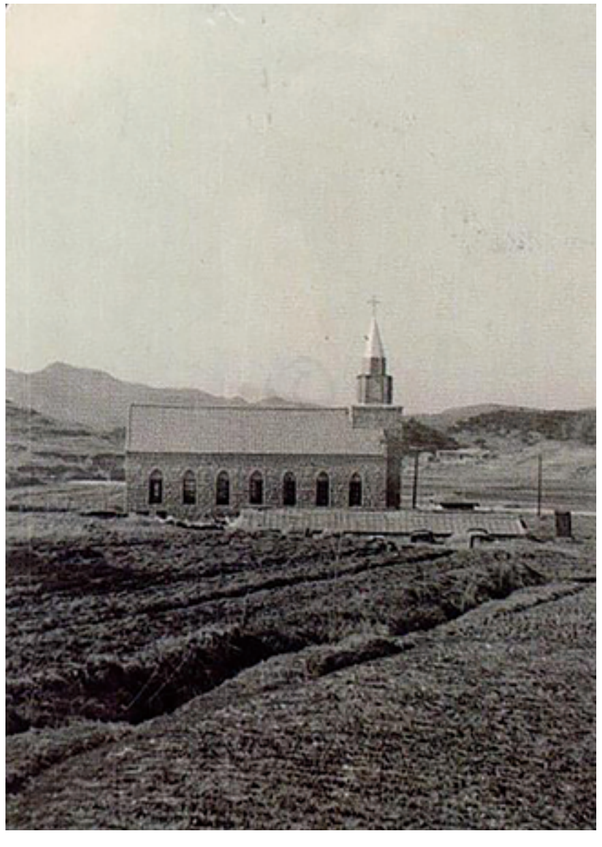
32 ---------- 산골고개 산골 광산 안내판

당시 응암교회는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응암리 181번지에 있었는데, 현재 영락중학교 근처 아래쪽에 있었어요. 은평면에 응암교회 하나밖에 없을 때였어요.

——— 차철수 대조동

19세기 말,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변신하면서 나름대로의 근대화를 시도했지만 외세의 침입과 내부 갈등으로 크게 흔들렸다. 파발이나 중국으로 가는 사신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며, 기존의 제도와 관습은 급격하게 힘을 잃어갔다. 개신교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고, 수많은 서구 문물이 밀려들었다. 서대문과 마포 일대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은평에는 응암교회가 1931년에야 처음으로 들어섰다.

34



33

35

36

33 ---------- 응암교회 돌예배당 신축공사 / 1961.10.24 / 차철수 기증
34 ---------- 응암교회 / 응암동 6-1 건축하는 모습 / 1958 / 차철수 기증
35 ---------- 응암교회 / 신축광경 / 1956.5.1 / 차철수 기증
36 ---------- 응암교회 /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응암리 181번지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응암교회의 모습 / 1934.5 / 차철수 기증
37 ---------- 응암교회 전경 / 2012 / 차철수 기증

37

38

39

40

서울의 서쪽 관문 수색역과 신작로

밀려든 신문물 중 가장 충격적인 존재는 '철도'였다. 교통수단이라고는 두 발, 잘해야 말과 나룻배가 전부였던 시절에 거대한 쇳덩어리가 말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는 것은 시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충격이었다. 1904년 2월,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경의선 철도 건설에 나섰고, 우리나라의 토지와 노동력, 물자를 무자비하게 수탈하여 1905년 11월에 경의선 철도를 개통하였다.

파발마와 사신일행이 지나가지 않게 된 은평 땅에는 대신 수색역이 들어섰다. 수색역은 경의선 철도 첫 건설 당시부터 개설되었는데, 부지 면적은 약 24만㎡에 달했다. 당시의 경의선은 임시 군용철도나 마찬가지였기에, 역사도 군대막사와 다를 바 없는 단층 목조 가건물이었다. 1908년 정식 영업을 시작한 수색역은 당시 경성의 서쪽 관문으로 인식되었다.

38 ---------- 수색역 공사 / 역장님 기증
39 ---------- 수색역 공사
40 ---------- 서울지구 철도시설확장 수색차량기지신설기공식 / 1968.8.7
41 ---------- 수색역 / 1979 이전
42 ---------- 수색역 / 1980 이후 / 역장님 기증

41

42

43

44

45

46

47

48

43 ---------- 수색로304_1번지 / 2010 / 출처불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44 ---------- 수색로227길4번지미상 / 2010 / 출처불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45 ---------- 수색로320-1번지 / 2010 / 출처불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46 ---------- 느티나무길10번지 / 2010 / 출처불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47 ---------- 수색로22길 2-12번지 / 2010 / 출처불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48 ---------- 수색로320-14번지 / 2010 / 출처불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49 ---------- 수색역 플랫폼 / 역장님 기증

수색역이 확연하게 변모하게 된 계기는 조차장 건설 때부터였다. 1937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경성, 평양, 대구, 부산 등에 조차장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경성지역을 맡을 조차장으로 수색역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착공 당시 수색역 조차장은 조선에서 제일 큰 정거장으로 한 번에 약 2,000량의 여객차와 화차를 수용, 정리할 수 있는 최신 시설로 계획되었다. 조차장 건설 이후 수색역은 단순한 정거장의 기능보다는 전국 각지로 떠나는 열차를 정비하고 발차 준비를 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다. 이후 조성된 철도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관사촌은 지금의 수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49

50

51

50 ---------- 수색변전소: 나원습씨 집 뒷편으로 보이는 수색변전소 / 1960년대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51 ---------- 수색변전소: 수색변전소 근무한 지병호님 / 1960 초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52 ---------- 수색변전소: 수색변전소 직원숙소(옛 관사)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53 ---------- 수색변전소: 수색변전소 입구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937년은 중일전쟁이 시작되는 해였고, 수색변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이후 수색역은 일본군의 보급기지가 되었는데, 그 증거 중 하나가 최근 복원된 수색역 인근인 마포구 상암동의 일본군 장교관사이다. 그러나 수색역은 일제의 침략기지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대륙으로 떠나는 독립투사들도 수색역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망명 시도가 그 대표적인 예다. 1919년 11월 11일, 의친왕은 수색역에서 중국행 열차에 탑승하여 상해임시정부 행을 시도하였으나 중국 안동(현재의 단동)에서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마지막 의열투쟁으로 알려진 부민관 폭탄 의거에서 사용된 시한폭탄은 수색변전소에서 빼돌린 자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21세기 들어 시작된 상암동 개발과 경의선 전철화로 인해 옛 벽돌 역사가 사라져 많은 주민들은 지금도 이를 아쉬워하고 있다.

52

53

조선총독부는 1912년 10월부터 서울 도로의 보수와 신설에 착수했다. 이 도로는 보통 '신작로(新作路)'라고 불렸다. 하지만 당시 총독부의 재정은 넉넉하지 않았고, 이미 구한말 경부선과 경의선 건설 당시부터 조선인의 재산과 노동력을 마음대로 쓴 바 있어서 총독부는 헌병의 총칼로 인력을 거의 무상 동원했다. 이런 조선 민중의 피눈물을 먹고 의주로가 신작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1914년 7~9월의 기록을 보면, 거의 1만 명의 주민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그 중 은평면 출신이 약 20%를 차지했다. 지금의 통일로인 경의로가 1등 도로라지만 폭은 7미터 정도에 불과했고 일부만 포장되었을 뿐 대부분은 자갈길이었다.

1
서울시 이전의 은평

**
서울의 서쪽 관문 수색역과 신작로

54 ---------- 수색변전소: 메디컬 빌딩에서 수색변전소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
서울시 이전의 은평

**
서울의 서쪽 관문 수색역과 신작로

55

일제 강점기의 은평

1910년 8월 29일, 완전병합에 성공한 일제는 한성부를 폐지하고 경성부를 두었는데, 같은 부이지만 수도의 지위에서 격하시켜 경기도 산하에 두었다. 조선시절의 '방'은 면으로 바뀌어 은평면이 되었는데, 당시 면사무소는 녹번 삼거리에 있었다. 1914년 4월, 은평면은 경성부에서 벗어나 고양군에 들어가게 되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 은평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은평 주민들은 10일에는 수색에서 만세시위를, 22일에는 역촌리에서 횃불시위를, 22, 23일에는 신사리와 녹번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감행해 수십 명이 연행되었다. 하지만 은평의 독립운동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2009년 5월 칠성각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와 신문들이다. 진관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투사 백초월 스님과 관련이 있는 이 태극기는 3·1운동 이후 국내외 독립운동 현장에서 발간된 상해판 독립신문 <조선독립신문> 등 6종 16점의 문서와 함께 발견되어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56

57

58

59

55 ---------- 태극기 / 진관사 문화재 설명회 / 2009
56 ---------- 태극기 / 진관사 문화재 설명회 / 2009
57 ---------- 특별기획전 3.1혁명과 백초월 개막식 / 2019.2.26
58 ---------- 특별기획전 3.1혁명과 백초월 개막식 / 2019.2.26
59 ---------- 특별기획전 3.1혁명과 백초월 개막식 / 2019.2.26

60

은평 지역 대부분은 농지였고, 주민들은 농민, 지주는 일본인들이 많았다. 1931년의 자료에 의하면 은평면은 농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63.9%인 4,095명에 달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 대자본의 조선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교통이 편리한 영등포 일대에는 제조업이 급속하게 육성되었고, 은평은 풍치지구와 농업지대로 조성되어 1914년 일본 농업경영회사가 자본금 100만원의 거금을 투입, 불이흥업이라는 기업형 농장을 설립하였다. 불이흥업은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에 힘입어서 최대 규모의 농장회사로 성장했다. 일제의 대륙 침략 전쟁으로 군납이 활성화 되었고, 불이농장 안에서는 돼지 수천 마리, 닭 수만 마리를 키우기도 했다. 옛 국립보건원 앞 사거리 건너편에는 큰 마구간이 있어 그쪽에서는 군마를 많이 키웠다.

61

1938년에는 약 310만㎡에 달하는 은평면 이와무라농장에서 은평 농민들이 일본인 지주를 상대로 쟁의를 일으켜 은평의 독립운동 전통을 되살렸다.

1938년 대구에 살다가 형님이 다니는 불이(不二)흥업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가족이 올라와 불이흥업주식회사 양계장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그때 불이흥업주식회사는 고양군 은평면 녹번리와 불광동에 위치한 곳인데 지금으로는 혁신파크와 불광시장 일대니까 규모가 아주 컸어요. 아마 수백만제곱미터는 되었을 거예요

——— 차철수 대조동

62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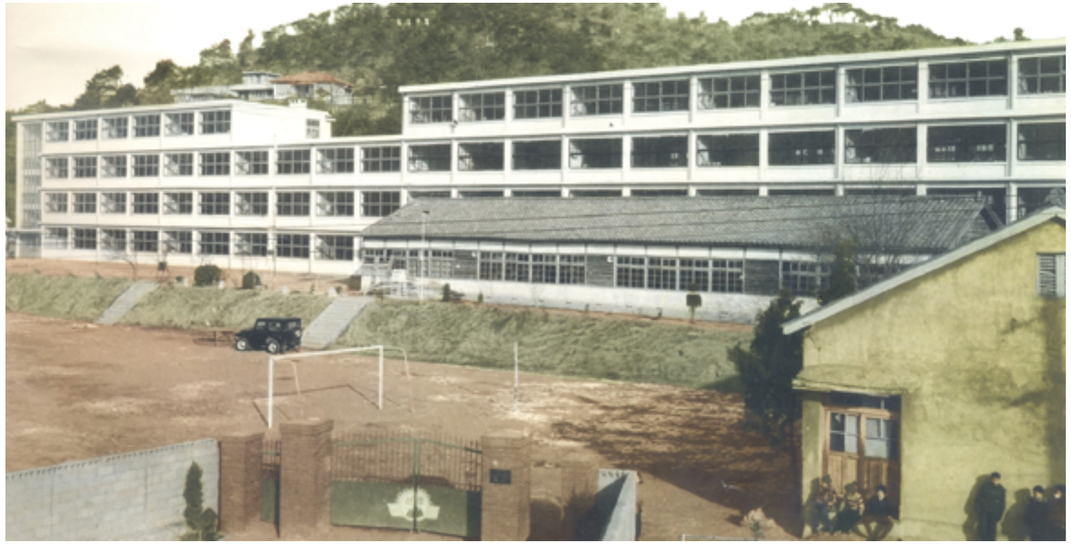
60 ---------- 불이농장 전경 / 1940 / 차철수 기증
61 ---------- 불이농장: 여름 불이농장에서 밭 매는 모습(현 불광1동 현대APT 일대) / 1943 /차철수 기증
62 ---------- 불이흥업주식회사: 양계장과 양돈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 1943 / 차철수 기증
63 ----------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초 불광리 닭장뒷집 불이농장사택에서 차철수일가 / 1940 / 차철수 기증

신도초등학교를 1대 아버님은 1회에 졸업하시고, 2대 본인은 22회, 3대 아들은 46회로 3대 모두가 신도초교를 나와 자랑스럽습니다.

——— 김주환 진관동

우리 첫째 아이가 1977년 2월 진관동에 있는 신도초등학교를 졸업하던 사진이에요. 그때는 약 1만5천세대쯤 살아서 학생들도 많았지요. 아들 삼형제 모두 이곳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곳이지요. 뉴타운 개발하면서 신도초등학교가 없어졌다가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재개교를 했지요.

——— 엄태평 진관동



64 ---------- 신도초등학교 교사전경 / 1973 / 신도초등학교 제공

한편, 일제강점기에 문을 연 학교 중 주목할 만한 존재는 1928년 개교한 신도초등학교와 1931년 문을 연 은평초등학교, 1935년 개교한 수색초등학교다.

65 ---------- 수색초등학교 교사전경 / 1983 / 수색초등학교 제공

66 ——— 은평초등학교 조회 전경 / 1945 / 차철수 기증
67 ——— 은평초등학교 14회 졸업기념 개천절 봉축 학예회 / 1945 / 차철수 기증
68 ——— 은평초등학교 졸업식: 동생 졸업식에 형제들과 / 1967 / 김동환 기증
69 ——— 은평초등학교 14회 6학년 여학생 일동 / 1945 / 차철수 기증
70 ——— 은평초등학교 14회 6학년 남학생 일동 / 1945 / 차철수 기증

66

67

68

1936년 조선총독부는 경성에 인접한 지역 일부를 경성부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평면에서 경성부로 편입된 지역은 창의문 밖 부암동과 홍제리 일대로 현재 은평구 지역은 그대로 고양군 산하로 남았다. 1943년에는 구제(區制)가 실시되면서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탄생했다. 2년 후 은평 땅도 감격적인 해방을 맞았다.

69

70

71

72

73

74

71 ---------- 수색초등학교 전경 / 1970년대 / 수색초등학교 제공
72 ---------- 수색초등학교 11회 졸업식 / 1948 / 김인규 기증
73 ---------- 수색초등학교 운동회 / 1973 / 수색초등학교 제공
74 ---------- 수색초등학교 교사전경 / 1930~1940년대 / 수색초등학교 제공

75 ---------- 신도초등학교 큰아들 졸업식 / 1977 / 엄태평 기증
76 ---------- 신도초등학교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교실풍경 / 1973 / 신도초등학교 제공
77 ---------- 신도초등학교 음악수업 / 1982 / 신도초등학교 제공
78 ---------- 신도초등학교 근처풍경 / 1997 / 신도초등학교 제공
79 ---------- 신도초등학교 입학식 / 1982 / 신도초등학교 제공
80 ---------- 신도초등학교 청소모습 / 1982 / 신도초등학교 제공

75

76

77

78

79

80

2 은평의 서울시대

광복과 한국전쟁 057
불광지구/역촌지구 대단위 토지 구획정리사업 063
은평의 농업과 대장간, 그리고 수색동 연탄공장 075
은평을 사통팔달로 만든 도로들 085
은평의 전통시장들 093
최초의 주택조합단지 기자촌 107
언론인과 문인, 그리고 지사들 111

81

82

83

84

85

81 ---------- 중종 숙의 나씨묘에서 바라다 보며 찍은 현재의 증산동 새마을 금고 본점(조선기와집)의 모습 / 1955 / 나창균 기증
82 ---------- 녹번리 / 1950년대 / 출처:도깨비뉴스
83 ---------- 응암동 163번지에서 바라본 은평구 전경: 멀리 바라보이는 들판이 현 역촌동 구산동 대조동 갈현동 일대 / 1954 / 차철수 기증
84 ---------- 냉정골 전경(현 응암1동) / 1955
85 ---------- 은평 / 1954

86

86 ---------- 평화공원 준공 / 2010
87 ---------- 평화공원 해밀턴 쇼 제막식 / 2010
88 ---------- 평화공원 해밀턴 쇼 제막식 / 2010

광복과 한국전쟁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은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46년 9월, 서울이 경기도 관할에서 벗어나 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았고, 1948년 8월, 서대문구가 지금의 은평구 지역 대부분을 편입하면서 은평의 서울시대가 시작되었다.

녹번동의 출장소가 은평 지역의 행정을 맡았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깐이었고,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국군이 창설되었고, 군사기지 수색에서 제11연대 등 많은 부대들이 창설되었다. 지금도 진관동 입곡삼거리 부근에는 기계화사단의 전차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사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도심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은평도 큰 피해를 입었다. 9월 말 벌어진 서울 탈환전에서 주 전장은 인접한 연희고지 일대였지만 은평 지역에서도 작은 전투가 벌어졌다. 녹번리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미국인 선교사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나 자원입대한 28세의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 중위가 희생되었다. 역촌역 옆 은평평화공원에 그의 동상과 추모비가 서 있다.

87

88

89

90

91

92

93

은평 입장에서 한국전쟁 기간 물적 측면의 최고 손실은 고찰 진관사가 전각 대부분을 소실당한 것이었고, 인적 손실로는 녹번리에 살던 정지용 시인이 납북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은평초등학교 등 학교들도 전화를 입어 다른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여야 했다. 전쟁은 수많은 전쟁고아를 만들었고 수많은 고아원이 생겨났는데, 은평구에도 은평천사원이 5명의 전쟁고아를 거둘 천막을 치며 문을 열었다.

은평천사원은 얼마 후 미군이 지어준 퀀셋막사를 사용했고, 나중에는 번듯한 건물을 지으면서 도시의 변화와 함께하며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을 성장시켜 사회에 내보냈다. 현재 은평천사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기관으로 발전하였고, 2012년 엔젤스헤이븐으로 개명하여 세계로 봉사 영역을 넓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북지방에서 온 피난민들도 주로 수색 부근에 많이 정착하여 평안도민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89 ---------- 은평천사원 / 1960년대 / 엔젤스헤이븐 제공
90 ---------- 은평천사원 / 1979 / 엔젤스헤이븐 제공
91 ---------- 은평천사원 / 1959 / 엔젤스헤이븐 제공
92 ---------- 은평천사원 / 1959 / 엔젤스헤이븐 제공
93 ---------- 은평천사원 / 1959 / 엔젤스헤이븐 제공
94 ---------- 은평천사원 김장하는 모습 / 1980년대 / 엔젤스헤이븐 제공

94

95

96

97

98

99

서울의 서쪽 관문 수색역도 역사가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철도는 군사시설이어서 조금의 여유라도 있으면 수시로 긴급복구를 해야 했다. 전선(戰線)이 고착된 1952년 말부터 철도는 다시 귀경 승객 수송을 개시했다. 미국 등의 원조로 자재를 도입, 보강공사를 추진한 결과, 1957년까지 철도시설의 90% 이상이 전쟁 전의 상태를 회복했다. 전쟁을 거치면서 철도에도 디젤기관차의 등장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1958년에는 수색역사도 재건되었다. 6·25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해 각종 물자들이 서울로 운송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행해진 조치였다.

95 ---------- 은평 / 1956
96 ---------- 녹신동 사무소 직원 및 통장 일동 / 1956 / 차철수 기증
97 ---------- 녹번동 응암1동 여름 전경 / 1956
98 ---------- 수색동 전경: 초가와 기와가 함께 어우러져있다 / 1959 / 박순금 기증
99 ---------- 수색동 전경: 전쟁 후 이곳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정착했다고 한다 / 1959 / 박순금 기증

100

불광지구
역촌지구
대단위 토지
구획정리사업

광화문을 기점으로 해서 10km가 안 되는 이 지역은 새로운 주택지로 각광을 받기에 손색이 없었다. 불광 지역의 신주거지를 시작으로 은평이 서울의 새 보금자리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1956년에는 171세대의 재건주택 단지가, 1958~1961년 사이에 국민주택 단지가 들어섰다.

101

102

1953년 휴전이 되고 그 전에 정부는 환도(還都)했으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서울은 폐허가 되었다. 도심에 집들이 지어지고 복구에 힘을 쏟았지만 돌아오는 시민들을 품어 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막노동을 하더라도 서울로 가서 입에 풀칠하겠다는 농민들의 상경을 막을 방도가 없었다.

서울 특히 4대문 안은 빠른 복구가 시작되었지만 물밀듯이 밀려드는 유입 인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부는 서울 4대문 밖에 적당한 주거지를 새로 개발하는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불광지구 대단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 등에 상응하는 일정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요한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었는데, 은평 토박이들은 학교와 도로, 관공서 등이 모두 자신들의 것으로 마련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오경자 진관동

103

104

100 ---------- 역촌동 구획정리사업 당시 / 1960 / 최준호 기증
101 ---------- 녹번동 안장박골 돌산위에서: 녹번, 불광, 갈현, 대조동 배경 / 1969 / 차철수 기증
102 ---------- 불광동 ICA아파트 / 1963 / 출처:서울신문
103 ---------- 대조동 불광1동 옛 국민주택 모습(현재 현대홈타운) / 1948 / 차철수 기증
104 ---------- 독박골 이재민촌(현 불광동 현대APT 일대) / 1960.11.30

이후 녹번동의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미국 국제협조처)주택, 불광우체국 뒤쪽의 녹신주택, 갈현시장 입구 쪽의 주택단지, 연신내에서 예일여고 사거리에 이르는 개천 따라 들어선 신흥주택들은 은평구를 살고 싶은 선망의 동네로 만들었다. 상당수 주택들은 '식침분리'구조로 만들어져 잠자는 곳과 밥을 먹는 장소가 구분되었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구조였다. 불광주택단지에는 정부 고위관리들도 많이 살았고,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오래 살면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불광동의 주택지 건설은 당시 건축사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은평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민주택단지는 주로 야산이나 교외지역에 자리 잡았기에 변두리 지역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교외지역에 주택들이 건설되면서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 도시 기반시설들의 정비와 함께 지역개발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던 김경숙 씨와 홍혜선 씨가 1964년에 함께 조사하여 쓴 <서울 집단주택지역의 지역성> 이라는 졸업논문에 의하면, 그때의 불광동 사람들은 활동력이 왕성한 연령층이 동네의 중심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분포에서도 사무직 종사자가 24%, 상업인이 20%, 공무원이나 교수와 같은 전문직업인이 16%를 차지하여 당시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문화와 경제의 수준이 골고루 높았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또 다른 조사를 봐도 그때 불광동 사람들의 텔레비전 보유율과 신문 구독률 등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은평구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도시화되었지만, 지방에서 밀려드는 이농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수색의 천막동, 교외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 사는 주민들도 많았다.

그 당시에는(대조초 재학시절) 불광동이 중심이었습니다. 현재 하나은행 사거리 등 역촌동 일대는 논밭이었습니다. 역촌오거리와 예일여고 사거리에도 개천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논밭을 지나서 갔었지요.

——— 서애란 대조동

105 ---------- 중학생들이 서오릉으로 소풍가는 모습(다리는 현 예일여고 사거리) / 1960.5 / 차철수 기증

106 | 107

106 ---------- 응암동 수재민집마당 누나들과 / 1959 / 김일상 기증
107 ---------- 응암동 수재민집마당 메리와 / 1959 / 김일상 기증
108 ---------- 수색동 정착민에게 구호미를 전달하는 모습 / 1960
109 ---------- 수색동 천막동 모습 / 1961

108

109

110

111

112

113 | 114

115 | 116

117

118

119

120

121 | 122

123

110 ---------- 구산동 마리아 수녀회 갱생원 개원 / 1984
111 ---------- 구산동 마리아 수녀회 갱생원 개원 / 1984
112 ---------- 신창이발관 앞에서 찍은 사진
(진관동 148-12) / 1975 / 김영숙 제공
113 ---------- 은평공민학교 개교식 / 1973
114 ---------- 은평공민학교 개교식 / 1973
115 ---------- 은평공민학교 개교식 / 1973
116 ---------- 은평공민학교 개교식 / 1973
117 ---------- 응암동 마약중독자 치료소 준공 / 1960
118 ---------- 응암동 마약중독자 치료소 준공 / 1960
119 ---------- 응암동 소년의 집 개관식 / 1975
120 ---------- 응암동 소년의 집 개관식 / 1975
121 ---------- 응암동 시립아동보호소 운동회 / 1967
122 ---------- 응암동 시립아동보호소 운동회 / 1967
123 ---------- 응암동 시립아동보호소 운동회 / 1967

124

125 | 126

127

128

정부는 1965년부터 도심의 무허가주택에 사는 빈민들을 외곽 지역에 강제이주시켰는데, 말 그대로 땅만 주었을 뿐이어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강인한 생활력을 발휘하여 점차 흙벽돌집이나 판잣집으로 바꾸면서 살아나갔다. 1960년대는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시기로, 은평에도 32세대 규모의 수색아파트가 1968년에 지어졌다. 수색아파트는 그 시기 아파트의 특징인 연탄 아궁이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당시 수색에서 가장 최신식 건물이었지만 현재는 아주 많이 노후화되어 수색증산뉴타운 개발로 철거를 앞두고 있다.

124 ---------- 수색아파트 모습 / 2010
125 ---------- 수색아파트 입구 / 2010
126 ---------- 수색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곳 / 2010
127 ---------- 수색아파트 수색아파트 복도 / 2010
128 ---------- 수색아파트 입구 벽에 걸린 시계 / 2010

129

은평의 농업과 대장간, 그리고 수색동 연탄공장

많은 지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후반까지도 은평은 농업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진관동이 그러했는데, 500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은평 지역에 살아온 김주환 씨의 증언에 의하면, 밭농사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기름종이를 발라서 바람을 막아 지금의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 겨울에도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쌀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논에 모내기를 하라는 서울시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수지도 없고 가뭄으로 물을 댈 수 없었던 곳에 소방차를 동원하여 모내기를 했다고도 한다.

은평은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기에 농기구 수요가 많아서 은평 지역에는 많은 대장간이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아직 불광대장간과 수색의 형제대장간이 남아 있다. 두 곳에는 여전히 망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두 군데 모두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형제대장간의 경우 인근에 들어선 방송국에서 주문하는 사극용 소품들이 매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고색창연한 대장간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문 품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29 ---------- 불광대장간 / 2015
130 ---------- 불광대장간 서울미래유산 / 2019
131 ---------- 불광대장간 / 2015

130

131

1대 대장장이신 아버님(박경원)이 15세부터 대장간에서 머슴으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리어카에 이동식 대장간을 만들어 은평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대장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963년 첫 대장간을 지금의 불광초등학교 자리에 개업하고, 이후 불광천이 복개되면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시가 불광대장간의 전성기로 제가 그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까지 가는 버스들이 다니던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대장간이 번창하였죠.

그 후 건물의 사정으로 이곳 대은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한곳에서 대장간을 열고 있습니다. 2012년 구청에서 미래유산이라는 것을 만드니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 후 서울시에서 나와 인터뷰를 한 후 문화재위원 9명이 평가하고, 다음 해에 미래유산 명판을 달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병에 걸려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시던 이웃 어르신이 불광대장간이 그대로 있어 자신이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모습에서 더욱 이곳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 박상범 대조동

132

133

132 ---------- 형제대장간 / 2010
133 ---------- 모래내대장간 / 2010

134 | 135

136 |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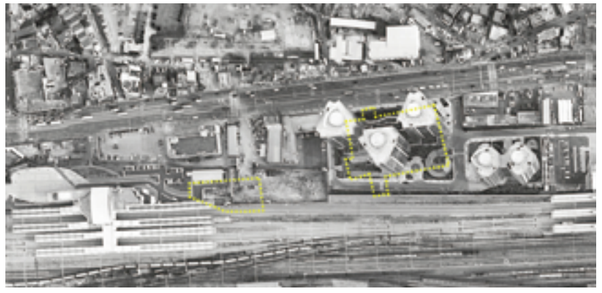
134 ---------- 형제대장간 작업모습 / 2010
135 ---------- 모래내대장간 작업모습 / 2010
136 ---------- 수색대장간 나원습씨 대장간 /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
137 ---------- 수색대장간 나원습씨 대장간 /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

수색연탄공장 이전 문제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갔어요. 사관학교 신체검사에서 떨어지고 대학은 완전히 포기해버린거죠. 그러면서 연탄장사를 했지요. 수색연탄공장에 가서 연탄을 줄서서 기다리며 차로 실어다가 받아서 리어카로 배달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 일을 잠시 하다가 그 후에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 최준호 역촌동

138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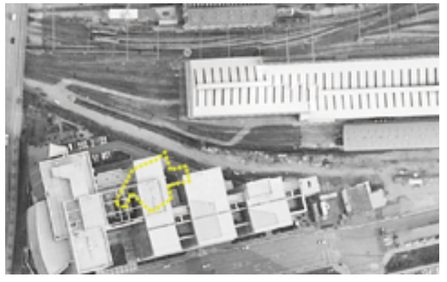


138 ---------- 삼표연탄공장 / 1972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39 ---------- 삼표연탄공장 / 2009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40 ---------- 삼표연탄자리: 메디컬타워에서 바라본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41 ---------- 한일연탄공장 / 1972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42 ---------- 한일연탄공장 / 2009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43 ---------- 삼천리연탄의 흔적 / 2010.1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44 ---------- 삼천리연탄의 흔적 / 2010.2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40

141

142



은평에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다 할 큰 공장이 없지만 수색동만은 예외였다. 1955년부터 수색동에 자리잡기 시작한 삼천리연탄과 1971년에 수색으로 이전된 삼표저탄장과 대성저탄장, 한일연탄 등 많은 연탄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143
144

145

145 ---------- 동고택시 입구 전경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46 ---------- 경부교통 차고(1973년부터 증산동에 위치)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47 ---------- 경부교통 전경(1973년부터 증산동에 위치)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148 ---------- 선진운수 종점 / 2019
149 ---------- 덕신기업 / 2019
150 ---------- 서부터미널 전경

146 | 147

148

149

수색동에 연탄공장이 많은 것은 물론 철도의 영향이 컸다. 철로를 따라 강원도 탄광에서 직접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에게 연탄을 공급할 공장이 많이 들어선 것이다. 분진과 가스중독이라는 치명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연탄은 서민들이 겨울을 날 수 있게 하는 일등 공신이었고, 산림 보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은평주민 특히 수색, 증산동 주민들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1973년에는 대조동에 서부버스터미널이 들어섰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의선 자리를 버스가 대신한 것이었다. 서울 서북쪽 끝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버스회사와 택시회사가 들어섰고, 이들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150

제가 대조초등학교 10회 졸업생인데… 당시 학교가 큰 편이었습니다. 오전, 오후반도 있었죠. 한 학년 10개 학급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역촌초등학교도 생겨 일부는 거기로 가기도 했습니다. 파주나 금촌에서 유학을 오기도 했죠. 당시 통학은 버스를 타거나 걸어다녔습니다. 버스는 토큰과 회수권을 사서 타고 다녔지요. 그리고 대조초와 동명여고에도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우리 집 막내는 삼송리까지 가서 지치고 온 기억이 나네요.

——— 서애란 대조동

우리 애들이 다 충암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애들이 여기를 나왔으니까 역사를 다 알죠. 여기가 옛날에는 무덤이었대요. 아내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였어요. 논밭이 있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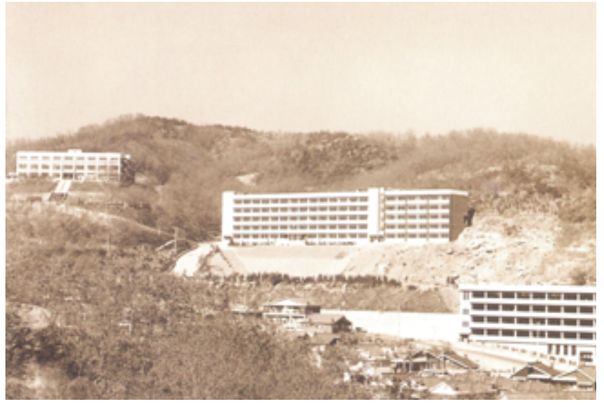
——— 서성희 응암동

151
152

151 ---------- 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 손님을 맞는 걸스카웃 학생들 / 1980 / 동명여자고등학교 제공
152 ---------- 동명학원 교정 / 1970 / 동명여자고등학교 제공
153 ---------- 숭실고등학교 신사동부지 토목공사(옛 고택골) / 1973 / 숭실고등학교 제공
154 ---------- 숭실고등학교 전경 / 1978 / 숭실고등학교 제공
155 ---------- 예일학원 구산동 8-3 신축이전 / 1969 / 예일여자고등학교 제공
156 ---------- 예일여자고등학교 교정 학생들 / 1981 / 예일여자고등학교 제공

어쩌면 연탄공장과 서부버스터미널, 버스와 택시회사들은 산업화, 도시화시대를 맞는 은평의 상징적인 존재일 것이다. 또한 예일여고, 충암고, 대성고, 선일여고 등 대표적인 지역 사학들이 설립되고, 숭실고, 동명여고 등이 이전하면서 교육시설도 갖춰지기 시작했다. 특히 윤동주 시인과 황순원 작가를 배출한 숭실고의 이전은 문학도시 은평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153
154



155
156

157

은평을 사통팔달로 만든 도로들

서대문구 홍은사거리와 은평구 진관동을 지나 임진각까지 이르는 통일로는 1970년대 초만 해도 은평구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도로였다. 1970년대 중반 역촌동과 신사동, 증산동, 수색동을 잇는 길을 넓혀 성산대로로 연결하고 서대문구 연희동과 은평구 응암동 사이의 고개를 뚫어 길을 만들었다.

은평구가 서대문구에서 분구한 1979년에는 이미 은평구의 주요 도로망 포장이 완료되었다. 통일로를 중심으로 진흥로, 은평로, 서오릉로, 증산로, 연서로, 가좌로를 주간선도로로 갈현동길과 응암로를 보조간선도로로 하는 형태였다.

1980년대는 은평구의 교통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1980년 은평구와 종로구를 직접 연결하는 북한산 구기터널 공사가 마무리되어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이후 개설된 도로는 대개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거밀집지역과 도심 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통과하였다.

158

159

157 ---------- 증산-수색 도로확장공사 / 1973.7.23
158 ---------- 통일로 기념비 / 2003.5
159 ---------- 홍제동, 녹번동 도로확장공사 / 1966.4.22
160 ---------- 홍제동, 녹번동 도로확장공사 / 1966.4.22
161 ---------- 홍제동, 갈현동 간 도로확장공사 기공식 / 1966.5.16
162 ---------- 녹번 수색 도로확장공사: 녹번 삼거리에서 수색간 도로 확장 공사 / 1970 / 차철수 기증
163 ---------- 녹번 수색 도로확장공사: 도원극장과 서부 오토바이 상사 앞 도로 확장 공사 모습 / 1970
164 ---------- 녹번 삼거리에서 새동리 도로 확장 공사 전경 / 1972.4 / 차철수 기증
165 ---------- 녹번 삼거리 도로 모습 / 1990년대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응암2동 홍은3동 기간도로 기공식 / 1972.3.29
167 ---------- 응암2동 홍은3동 기간도로 기공식 / 1972.3.29
168 ---------- 중산-수색 도로확장공사 / 1973.7.23

166

167

168

169 ---------- 은평출장소 홍암중고교 간 도로개설 / 1978.3.29
170 ---------- 불광1동-불광2동 도로개설 공사 기공식 불광동 전경 / 1975.1.22
171 ---------- 은평육교 준공식 / 1975.5.27
172 ---------- 불광1동-불광2동 도로개설 공사 기공식 불광동 전경 / 1975.1.22
173 ---------- 불광천을 가로질러 신사동과 녹번동을 잇는 신사교 / 1975.5.27
174 ---------- 은평육교 준공식 / 1975.5.27
175 ---------- 은평육교 준공식 / 1975.5.27

169

171

170

2
은평의 서울시대

172 | 173
174 | 175

****
은평을 사통팔달로 만든 도로들

176

은평의 전통시장들

은평구는 주거지역답게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의 주택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섰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고양군민들도 많이 찾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1993년에는 연서시장 등 18개 시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12개, 그 중 리모델링 중이거나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기능이 상실된 4개 시장(양지시장, 수일시장, 응암시장, 증산골목시장)을 제외하면 8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점포는 1992년에 1,001개였는데, 현재는 577개, 노점 188개로 외면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불광시장은 NC백화점으로, 갈현시장은 대형마트와 상가로 변신하는 시대적 변화를 겪었고, 점포 면적도 많이 넓어졌기에 숫자만큼 쇠퇴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대림시장 등 남아있는 시장들도 슬레이트지붕을 걷어내고 아케이드 지붕을 설치하는 등 10여년 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여 면모를 일신하였다. 하드웨어의 변화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과거 구에서 운영한 상인대학에 참여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77

대림시장에서부터 신양극장 그 일대까지 전부 다 수재민 집이었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거의 다 논밭이었고 집이 드문드문 있었지요. 그때는 서대문구 관할이었어요. 이건 1978년에 대림시장 입구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건물(태권도장 있는 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다만 전신주가 없어졌고, 이 주변 집들도 다 변했지요.

——— 김일상 응암동

178

179

180
181

182
183

176 ---------- 수색초등학교 앞 수일시장 골목까지 제설작업 / 1974년
177 ---------- 응암3동 대림시장 / 2015.1.21
178 ---------- 대림시장 입구 / 1978 / 김일상 기증
179 ---------- 1978 대림시장 입구와 같은 곳(태권도장 건물) / 2019

180 ---------- 구파발시장
181 ---------- 구파발시장
182 ---------- 구파발시장
183 ---------- 구파발시장

버스노선이 연장되지 않아 통일로 큰 길까지 걸어 나와야 하는데 도로포장이 안 된 상태라 비가 오면 진흙뻘 같은 길을 푹푹 빠지며 걸어야 했죠. 장화를 신고 나와 통일로 입구에서 구두로 바꿔 신고 출근을 하느라 근처 진관시장이나 가게에 단골을 트고 신발들을 맡기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 오경자 진관동

앞에 있는 도로는 녹번동과 대조동 사이에 흐르는 하천을 복개한 것이에요. 하천에 물고기는 없고 악취가 심해서 아이들이 엄청 싫어했던 곳인데, 어느 날인가 복개를 했더라고요. 사진에 보이는 강화상회는 아직도 있는 곳인데 40년이 넘었겠네요. 사진에 보이는 골목이 재래시장인 대조시장 입구인데 아직도 있잖아요. 왼쪽의 건물 1층은 약국, 2층에 뉴욕제과가 있는 저 건물은 주위가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시장입구라 상품을 실은 리어카와 자전거가 보이고, 리어카에 항아리를 신고 판매하고 자전거와 도보로 중화요리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 박부영 진관동

184

185

184 ---------- 대조시장 입구 / 1983 / 박부영 기증
185 ---------- 대조시장 입구: 83년의 강화상회는 그대로이나 뒤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 2000 / 박부영 기증

186

187

188

186 ---------- 신옹암시장 / 2013.1
187 ---------- 중산종합시장 외관 / 2010
188 ---------- 중산로 15번가길 중산동 골목시장 풍경

NC백화점이었던 자리가 대조시장이었습니다. 개천가였고 선술집이 있었습니다. 특히 역촌오거리에 선술집이 많았고 개천은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시장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단칸방 집이 많았습니다. 콩나물공장도 있었습니다. 현재 쿠아레빵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콩나물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사왔습니다.

——— 서애란 대조동

지금 대조시장과 NC백화점이 있는데 그때는 NC백화점 자리까지 다 시장이었고, 우리은행이 지금 빌딩으로 신축되기 전 단층일 때 그 뒤는 다 여관골목이었고 나머지는 다 시장이었습니다. 활동하고 모임 끝나면 순대랑 막걸리 먹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대조시장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30년째 정월대보름에 그곳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미경 갈현동

189

190

191

1980년대 중반 대림시장의 식당들이 돼지 등뼈와 감자, 우거지 등을 넣고 끓인 감자국을 팔기 시작하면서 감자국거리가 형성되었고, 감자국의 인기가 각지로 퍼져나가 감자국(감자탕) 전문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192

193

189 ---------- 수색로 16길 수일시장 입구
190 ---------- 수색로 16길 수일시장 풍경
191 ---------- 수색로 16길 수일시장 풍경
192 ---------- 대림시장 감자국거리
193 ---------- 대림시장 감자탕

제가 처음 은평구에 왔을 때 은평구는 다른 서울 같지 않았어요. 시골 느낌? 제가 분교를 다녔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서울역 빌딩 뭐 이런 것도 없고, 응암시장하고 대림시장이 있었고. 우리 시골에서는 장터가 있었거든요.

——— 박종배 응암동

2010년 당시 제가 왔을 때는 옛날 오래된 다세대, 빌라, 주택들이 있었고, 연신내 전통시장도 있었는데 그 전통시장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다르게 변해가고 규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은평구가 발전하면서 옛 모습들이 줄어드는데 전통을 계속 간직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계획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재찬 불광동

194

194 ---------- 연신내 범서 쇼핑 센터 / 1996
195 ---------- 수색동 삼익유통 종합구판장 개장 / 1981.11.30
196 ---------- 수색동 삼익유통 종합구판장 개장 / 1981.11.30

195

196

197

198

199

197 ---------- 불광극장(1983년 폐관) / 1963
198 ---------- 서부오토바이상사 앞에서 강화로 출발하기전 회원들의 모습 뒤로 보이는 1970년 도원극장 / 1970 / 차철수 기증
199 ---------- 대조동 양지극장 / 1996
200 ---------- 불광극장 내부(1983년 폐관) / 1963
201 ---------- 응암2동 한복시네마 / 1996
202 ---------- 도원극장 / 201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3 ---------- 응암1동 신축 동사무소 준공 / 1975
204 ---------- 응암1동 신축 동사무소 준공 / 1975
205 ---------- 녹번동 서부소방서 개소식 / 1975
206 ---------- 녹번동 서부소방서 개소식 / 1975
207 ---------- 진관동사무소 개청식 / 1973.7.2
208 ---------- 은평출장소 대조동 청사 준공식 / 1975

209

최초의 주택조합단지 기자촌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은평의 보물을 꼽으라면 기자촌 옛터일 것이다. 언론계 종사자들도 당시 주택난에 시달려야 했고, 이에 전국언론사의 기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기자협회(1964년 창립)는 무주택 기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자들이 모여서 함께 부지를 마련하고 집을 짓는 주택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하면서 기자촌이 태동했다. 공기 좋고 쾌적한 주택단지가 될 것이며 수려한 북한산이 감싸안고 있는 명당 중 명당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지금의 은평뉴타운 뒷부분인 기자촌 부지가 낙점되었다.

1969년 3월 24일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 산64-1 국유지 144,214 ㎡를 67,200,000원에 불하받아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일시불로 20%를 할인받아 3.3 ㎡당 1,540원이었으니 당시 인근 농지가 3.3 ㎡당 3,000원임을 감안하면 악산을 깎은 택지의 가격으로는 상당한 고가였다. 1968년 12월 20일 352명이 주택사업을 확정하고 12월 26일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 창립총회를 마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주택조합, '한국 기자촌주택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이어서 1969년 3월 29일, 기공식을 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1969년 11월 13일 동화통신의 이선명 기자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기자촌 1차분 주택이 완공되어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1972년 8월 1일 기자촌 일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선포되어 재테크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지역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일대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서울시민이 되었다. 이것이 서울의 마지막 확장이었는데,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마지막 편입지역의 주민이었다. '무주택 현직 언론인'이 기자촌의 유일한 입주자격이었다. 1971년 4월 19일 잔무를 완전히 정리하고 기자촌주택조합은 기자촌 건설사업 종료를 선언했다. **- 오경자**

209 ---------- 한국기자협회택지조성기공식 / 1969.3.29 / 오전식 기증
210 ---------- 한국기자협회택지조성기공식 / 1969.3.29 / 오전식 기증

210

******

수도물도 잘 나오지 않아 공동수도에서 받아써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서울시의 식수차가 물을 날라다 주어 갈증을 겨우 면하게 해주었다. 물장수의 신세도 졌다. 빨랫감을 모아서 이고 지고 진관사 계곡이나 삼천리골로 찾아가서 흐르는 맑은 물에 빨아 이고 돌아오곤 했다. 대학시절 딸기 먹으러 놀러 오던 곳에 빨랫감을 이고 가면서 만감이 교차했지만 곧 좋아질 동네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뛰기도 했다.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젊은 부부들은 북한산 숲 속으로 한없이 걸어 들어가며 온 세상이 자기들 것인 양 흐뭇하고 행복한 마을이었다. 자동차 왕래가 거의 없는 마을은 아이들의 천국이자 놀이터였기에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울 수 있었다.

규모는 당시 국민주택 규모인 59.5㎡형으로 정하고 주택은행의 표준설계도 중 3가지 형태의 설계도를 확정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슬라브형 지붕 1가지, 기와지붕형 2가지, 모두 3가지 설계였다. 그리고 상가 주택도 선택 범위에 넣었다. 기와지붕 중 하나는 'ㄱ'자 설계였고, 하나는 직사각형인 구조였는데 그 설계만 주방 옆에 식당 공간이 있는 설계였다. 그 설계만 완전 입식 부엌인 셈이었다. 두 가지 설계는 입식 부엌이긴 하지만 조리 공간만 있어 밥상을 차려 들고 나와야 하는 옛날 집 스타일이었다. 지금은 그 장면이 눈앞에 잘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그 설계의 장점인 안방을 비롯한 방들의 면적이 넓다는 것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슬라브형은 옥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름에 더울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기피하는 이도 있었다.

——— 오경자 진관동

2015년 진관동 은평뉴타운에 '기자촌 옛터'라는 표지돌이 크게 세워졌다. 그 뒷면에 최초의 입주자인 기자협회주택조합 조합원 이름을 새겨 세운 표지돌은 기자촌의 역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조합의 효시를 전함과 동시에 한국 언론인의 중요 명부 중 하나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언론사의 기자와 논객들이 고르게 들어간 명단이다 보니 훗날 한국 언론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정계(政界)·관계(官界)의 요직에 발탁된 인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터전임을 설명하는 셈이다. '기자촌 옛터'라는 기념비문은 기자촌 건설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차로 입주하여 은평뉴타운 편입으로 철거될 때까지 줄곧 기자촌을 지키고 살아온 일경 한영탁(당시 조선일보 기자) 선생이 짓고 은평에서 오래 살고 있는 문단의 원로 이근배(예술원 회원) 시조시인이 글씨를 썼다.

211 212

211 ---------- 기자촌 공사현장 / 오전식 기증
212 ---------- 한국기자협회 기자촌운영회 / 오전식 기증

213

언론인과 문인, 그리고 지사들

기자촌의 언론인들은 동료의식을 기반으로 1970년대의 언론탄압에 저항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기자촌에 불이 꺼지는 날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대의식이 존재했다. 기자촌과 그 주변에는 언론인 뿐 아니라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김광주-김훈 부자, 송건호, 백기완, 신달자, 최인훈, 이호철, 서기원, 박범신 등이 그들이었다. 지금도 은평구에 살고 있는 백기완은 최근 아시아 전역에 퍼진 명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했다. 이런 인물들의 활동이 최근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14

213 ---------- 이호철 작가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 2016.3.23
214 ---------- 정지용 초당터 표지판 제막식 / 2016.4.26
215 ---------- 한국문학 속의 은평전 / 2016.4.19
216 ---------- 김훈 작가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 2016.5.7

215

216

217

218

대표적인 분단문학가로 꼽히는 이호철 작가는 1960년대부터 불광동에 거주하며 집필 활동을 했는데, 원산 출신으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경험을 살려 200편이 넘는 대부분의 작품을 분단 문제에 바쳤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상처'를 넘어 '화해'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이다. 은평구는 독바위역 부근 도로를 이호철로라고 이름 지었고, 2017년부터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이 상의 시상식을 시작으로 통일로 문학페스티벌이 열린다. 또한 분단문학의 걸작 '광장'으로 유명한 최인훈 작가도 은평구에 오래 거주하였다. 이런 은평의 문단 분위기는 '은평구가 북한산 서북쪽 끄트머리에 자리해 휴전선도 가깝고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니, 남북통일, 다시 말해서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방법을 우리 문학인들이 한번 모색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6월 민주항쟁 다음 해인 1988년 11월, 은평구에 사는 문인들이 모여 '은평클럽'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은평구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문인들이 뜻 있는 일을 해볼 길은 없을까 하는 취지로 시작해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이루어졌다. 1918년생 박연희 선생을 첫 좌장으로 모시고 창립된 이후 1997년에는 은평문인협회로 변신하여 현재 100여명이 한국 현대문학의 큰 줄기인 은평문학의 전통을 이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17 ----------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녹번동 일대 / 1971 / 차철수 기증
218 ---------- 중앙의 큰 건물 도원극장(현 은평구청 및 은평문화예술회관) / 1971 / 차철수 기증

219

은평의 문인들 중 많은 이들은 암울한 시대에 지식인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피하지 않았다. 제1세대 인권변호사이자 국민의 정부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은 법조인이자 유머집과 수필집을 여러 권 내고 출판사를 열기도 한 문인이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인생의 대부분을 은평에서 보냈다. 민주언론운동의 대표자인 송건호도 옥천에서 상경한 후 역촌동에서 오래 살면서 대부분의 책을 은평에서 써냈으며 역촌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혹독한 5공 시절 동안 거시기산악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울분을 삭히며 지냈다. 북한산을 자주 다녔기에 불광동 주변에서 자주 모였고, 이호철 작가와 최근 은평에 자리잡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초대원장인 박석무도 그 모임의 일원이었다.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은평은 재능과 뜻이 있었지만 옳은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한 이들의 울분을 감싸 안고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맡았던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219 ---------- 한국고전번역원 진관동 청사, 2018.8 개관 /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220 ---------- 한국고전번역원 신청사 기공식 / 2016.11.9
221 ---------- 한국고전번역원 신청사 기공식 / 2016.11.9

220

221

3 은평의 탈바꿈

1979년, 은평구 개청 119
기념비적인 해, 1985년 127
단독주택이 많았던 전원도시 은평 131
1990년대의 변화 139

222

1979년, 은평구 개청

1979년 10월 1일, 은평구는 서대문구에서 분리 독립하여 동 명칭 및 구역을 재정비하고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승격했다. 당시 구청 산하에는 13개 법정동이 있었다. 은평은 대략적으로 북위 37°36'과 동경 26°55'에 위치하고 있는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그리스 아테네가 같은 위도에 있는 도시이다. 국내적으로 보면 동쪽과 남쪽으로 서울의 24개구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데, 동쪽은 종로구, 남쪽은 마포구, 서대문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와 접해 있다. 동남쪽으로 통일로를 따라 7km 정도 서울 도심과 떨어져 있다. 면적은 약 29.7㎢로 약 20배를 하면 서울 전체 면적이 되며, 서울 자치구 중 6번째로 넓다.

222 ---------- 은평구 승격 및 청사 기공식 / 1979.10.1
223 ---------- 은평구 승격 및 청사 기공식 / 1979.10.1

223

224

225

226

224 ---------- 은평구청사 준공 / 1980.10 / 이한용 기증
225 ---------- 은평구청사 준공식 / 1980 / 출처:서울역사박물관
226 ---------- 은평구청사 준공식 / 1980.10.07

227
228
229

같은 해 '한양주택'이란 이름의 단층주택단지가 당시 은평구 진관내동, 정확하게 말하면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북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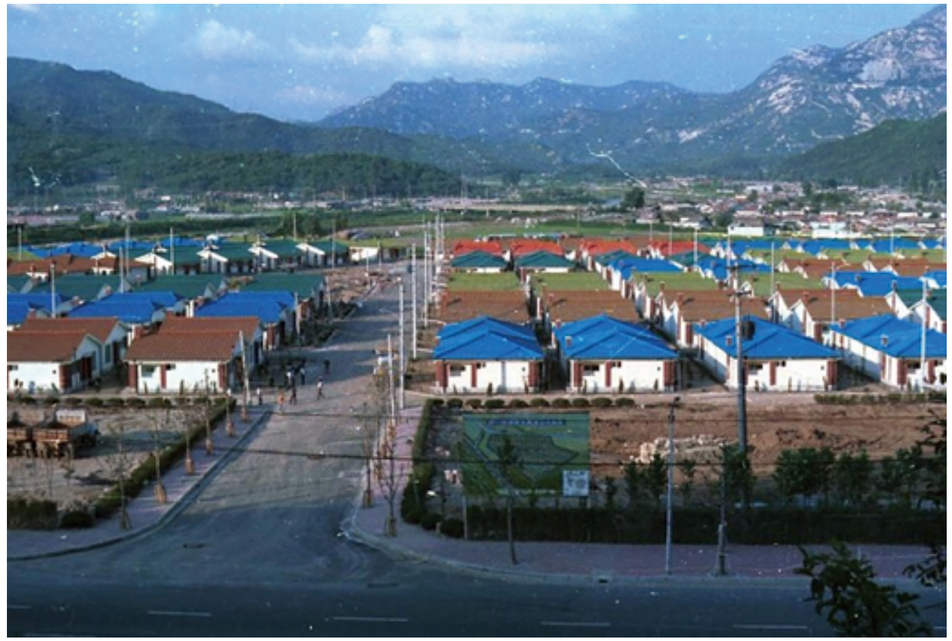
한양주택이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의 건설회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붙여졌다. 겉보기에는 깨끗했지만, 당시에 한양주택은 대단히 부실했다. 서울의 북서쪽 통로인 통일로 옆의 선전용 주택단지로 지어졌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원을 가꿔서 풍경을 크게 바꿔놓았다.

이런 이유로 서울의 생태문화적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양주택은 어느 마을보다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다. 한양주택의 가치는 서울시로부터도 인정받아 1996년 10월 '제1호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천막동, 기자촌, 한양주택 등으로 이어지는 은평주민의 끈끈한 시민정신은 현재 서울에서 시민운동이 가장 활발한 구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227 ---------- 한양주택 / 1979
228 ---------- 한양주택 / 1979
229 ---------- 한양주택 / 1997 / 신도초등학교 제공

저와 연결된 은평의 역사는 통일로 조성하는 과정을 들 수 있어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를 위해서 오고 가는 길을 제대로 닦기 위해서 즉, 통일로를 정비할 때에 한양주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양주택으로 이사했고 거기서 동생 출가를 시켰지요. 그때 사진은 없어요. 사진기 있는 집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 아쉬운 일이지요.

——— 최준호 역촌동



230

231

232

233

230 ---------- 한양주택 / 1979
231 ---------- 한양주택 모습 / 2000년대
232 ---------- 한양주택 모습 / 2000년대
233 ---------- 한양주택 모습 / 2000년대

234

235

236

237

234 ---------- 한국여성개발원 청사신축공사 기공식 / 1962.2
235 ---------- 한국여성개발원 청사신축공사 기공식 / 1962.2
236 ---------- 국립보건원(흰건물) 녹번동과 불광동 전경 / 1964 / 차철수 기증
237 ---------- 국립보건원 (현 혁신파크 일대) / 1971 / 차철수 기증
238 ---------- 여성개발원과 국립보건원 전경 / 1990년대 / 차철수 기증

개청 다음 해인 1980년 10월에는 녹번동 청사가 준공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불이흥업 자리에 은평구의 첫 중앙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정성연구센터(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착공되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보건원 등 많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이 들어섰다.

238

239

기념비적인 해, 1985년

1985년은 은평구 차원에서 기념할 일이 많은 해였다.

서울을 사선으로 횡단하는 지하철 3호선이 7월 12일 구파발~독립문(8.0km, 7개 역)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10월 18일에는 독립문~양재(18.2km, 16개 역) 구간이 뒤이어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지하철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인 김수근의 마지막 작품이자 한국 100대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불광동성당이 완공됐기 때문이다. 불광동성당은 근현대건축이 부족한 은평구에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또한 9월에는 불광동에서 안양을 연결하는 20.5km의 서부간선도로가 착공되었다. 이 도로가 완공된 후 서울과 지방이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은평구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3호선 개통과 함께 지하철 운행간격이 10분에서 6분으로 단축되었으며, 구파발에서 광화문까지 걸리는 시간은 버스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240

239 ---------- 3호선 개통 지축차량기지 전동차 반입식 / 1985.3.30
240 ---------- 3호선 개통 지축차량기지 전동차 반입식 불광역 / 1985.3.30

1964년 천주교 불광동 교회 건축 당시 건축책임자 친구와 같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지요.

——— 조태룡 불광동

은평의 역사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불광역 3호선 개통 당시, 개통일을 기다려 티켓을 사고 지하철을 탔던 경험이에요. 그 티켓을 모아둔다고 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 황필승 은평구 청기와양복점

241 ---------- 불광동성당: 입학기념 형제들과(김수근 건축 전 뾰족성당 시절) / 1968 / 김동환 기증
242 ---------- 현재 불광동성당 전경

241

242

243

244

243 ---------- 서부간선도로 기공 / 1985
244 ---------- 서부간선도로 기공 / 1985

245 ---------- 진흥로 138-20(녹번동 141-32) 단독주택 안 가족사진: 당시는 모든 집들이 이런 마당이 있는 주택 / 1981 / 박부영 기증

단독주택이 많았던 전원도시 은평

1980년 후반까지 은평구민의 대부분은 단독주택에 살았다.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허영자 교수도 불광동에서 살았는데, 언론인, 대학교수, 문인, 군장성 등이 많이 살았으며, 집들은 33㎡를 넘지 않았지만 마당이 넓었다고 한다. 허영자 교수는 좋은 공기와 물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였다고 회고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신달자 교수도 165㎡ 규모의 정원이 있던 신사동에서 많은 꽃을 키우며 살았다. 이사 후 일년 만에 부군과 시어머니가 쓰러져 무척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지만, 문인으로 가장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운명의 장소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중구 정동에 법원과 검찰청, 문화방송국(MBC)이 있던 시절 갈현동 쪽에는 법원 직원들이,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후문 쪽에는 판검사들이 사는 고급주택이 많았다.

당시의 아름다운 단독주택들은 현재는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주택, 또는 아파트단지로 변모하여 그때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주민들에게 아쉬움으로 남기도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많았어요.
응암동 1번도로, 2번도로, 3번도로, 5번도로까지 다 단독주택이었고 어렸을 때는 외갓집이 거기 단독주택에 살았었거든요. 저도 4~5살 때는 서울에 잠깐 올라와서 살았는데 그때 그 단독주택에 살았었어요. 3번도로하고 2번도로 사이에 수영장 있는 집도 있었어요. 김홍신 등 유명한 작가도 많이 살았어요.

——— 박종배 응암동

당시 녹번동에는 모든 집이 단독주택이었어요. 집집마다 사진처럼 넓은 마당이 있어서 꽃을 심고, 화단을 가꾸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놀기도 했지요. 사진은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 아들딸 삼남매와 찍은 사진인데, 1981년 9월에 찍은 거로 되어있네요. 마당에는 꽃뿐만 아니라 감나무, 대추나무 등 과일나무도 심어서 언제나 풍성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지요.

정겨운 골목이 없어지고 모두 아파트로 바뀌니까 아쉽지요. 대조동 우리집도 그랬지만 집집마다 대추나무가 많았는데, 어느새 다 사라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단독주택들이 많이 없어지고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쉬워요. 나지막한 집에서 안 살아 봤다면 모르실텐데 그런 집들은 위압감이 전혀 없어요.

——— 박부영 진관동

246

247

248

249

250

246 ---------- 신사2동 앞마당 / 1984 / 박지현 기증
247 ---------- 진흥로 9-3(역촌동 44-7) 오빠와 집 앞에 / 1983 / 송영은 기증
248 ---------- 단독주택단지 전경 / 1990
249 ---------- 단독주택단지 전경 / 1990
250 ---------- 단독주택단지 전경 / 1990

251

그 다음 해인 1986년에는 은평구 최초의 대단위 아파트단지(1,340세대)인 불광동 미성아파트가 착공되어 1988년 선을 보였다.

1980년대 후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일산신도시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됐다. 이에 따라 은평구의 도로교통 수요도 급격히 증가했고 주변에 많은 도로가 건설되었다.

251 ---------- 미성아파트가 보이는 전경 / 1990
252 ---------- 불광3동의 전경 왼편에 진성아파트 / 1982 / 고경석 기증
253 ---------- 연신초등학교에서 보이는 맞은편 진성아파트(현재 북한산대창센시티 아파트로 재건축) / 1982 / 고경석 기증

252

253

이 사진이 35년 전이니까 부녀회 활동할 때거든요. 제가 부녀회장을 한 6년인가 7년 했어요. 맨날 이 고아원에 갔었고, 장병 따라 김장도 해주러 갔었고요. 이건 감사패를 받는 건가 봐요, 이건 응암부녀회원들하고 찍은 사진이고, 이건 불우이웃돕기 현장 방문한 사진이에요. 얼굴 보니까 다 젊었을 때네요.

——— 서성희 응암동

254

255

256

254 ---------- 응암동 부녀회장 시절 / 1980년대 말 / 서성희 기증
255 ---------- 응암동 부녀회 연중행사였던 군부대 봉사 서오릉 근처 군부대 / 1980년대 말 / 서성희 기증
256 ---------- 은평구청 앞 응암3동 부녀회원들과 / 1980년대 말 / 서성희 기증
257 ---------- 은평구청 앞 제일식당에서 / 1980 / 이경환 기증
258 ---------- 은평구 제일뷔페 앞에서 / 1985 / 이경환 기증

257

258

259

1990년대의 변화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인 1990년대 은평구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1991년 3월에는 구의원선거가 열리면서 구의회가 구성되었고, 6월에는 서울시의회선거가, 1995년 6월에는 초대 민선구청장선거까지 실시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91년 4월, 은평구는 기초의원 선거를 통해 초대 지방자치의회를 구성한 이후, 16명의 의장을 배출한 지금의 제8대 은평구의회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은평구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50만 은평구민을 위하여, '주민'이 '주인'인 은평구, 주민과 통하는, 사람중심의 은평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은 오늘도 현장에서 정직하고 바른 의정활동을 통해 은평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은평을 만들고 있다.

260

261

262

263

264

259 ---------- 은평구 전경 / 1990
260 ---------- 불광중학교 부근 개발전 논 / 1990 / 권혜숙 기증
261 ---------- 은평구 전경 / 1990
262 ---------- 은평구 전경 / 1990
263 ---------- 은평구 전경 / 1990
264 ---------- 은평구 전경 / 1990

265

266

267

265 ---------- 은평구 전경: 거북바위에서 / 1990
266 ---------- 은평구 전경 / 1996
267 ---------- 은평구 전경 / 1996

268 ---------- 은평구의회 의원 연찬회 / 1998
269 ---------- 은평구의회 개원식 / 1991
270 ---------- 은평구의회 개원식 / 1991

268

269

270

271 ---------- 서부경찰서 / 1990
272 ---------- 서부 서울우체국 / 1990
273 ---------- 서부세무서 / 1990

271

272

273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던 수색동의 연탄공장은 점차 연탄 수요가 줄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문을 닫기 시작했다. 한일연탄은 이미 1980년대 후반 폐쇄했고, 1992년에는 삼천리연탄 공장이, 1999년에는 삼표연탄 수색공장이 문을 닫았다. 한일연탄은 현재의 수색교 건너편에 위치했으며, 삼표연탄은 현재의 이마트(수색점)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 수색동은 상암동 개발과 함께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2020년부터 서북권 3개구와 코레일과 협력하여 시작되는 수색역세권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서부의 관문다운 면모를 과시하게 될 것이다.

274

275

276

277

278

274 ---------- 메디컬 빌딩에서 바라본 수색동 전경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275 ---------- 상암동 컨텐츠진흥원에서 바라본 수색동 전경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276 ---------- 수색로 북가좌동 방향과 수색동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277 ---------- 메디컬센터에서 바라본 과거 천막동 자리(수색로14길5-3번지) / 2010 /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278 ---------- 월드컵현대아파트에서 바라본 불광천과 증산동 전경 / 2010 /출처: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279

280

279 ---------- 개발전 수색부근 야외스케이트장/ 1985 / 김일상 기증
280 ---------- 개발전 수색부근 야외스케이트장/ 1985 / 김일상 기증

281

282

281 ---------- 수색 구룡길 입구 / 2006.3
282 ---------- 수색초교 앞 / 2006.3

283 | 284

285 | 286

287 | 288

289 | 290

291 | 292

293

283 ---------- 은평구민한마음축제 / 1995
284 ---------- 은평구민한마음축제 / 1995
285 ---------- 제1회 은평구민의날 / 1996
286 ---------- 제1회 은평구민의날 / 1996
287 ---------- 은평구 보건소 진료모습 / 1997
288 ---------- 은평구 보건소 예방접종 / 1997
289 ---------- 광복50주년 국토순례단 환영식 / 1995
290 ---------- 구립 녹번어린이집 준공 / 1997
291 ---------- 구산 거북경로당 개관식 / 1996
292 ---------- 구산 거북경로당 개관식 / 1996
293 ---------- 지금은 사라진 서부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모습 / 1996 / 이경환 제공

294 ---------- 은평문화예술회관 개관 / 1996
295 ---------- 은평문화예술회관 개관전 / 1996 이전
296 ---------- 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야외공연장 개관식 및 기념공연 / 2015.4.1
297 ----------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 2015.5.20

294

295

296

1996년은 문화와 예술 면에서 특기할 만한 해였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구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750석 규모의 공연장과 2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갖춘 은평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고, 제1회 파발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축제에는 구내 각 단체들이 깃발을 들고 구파발에서 출발하여 연신내를 거쳐 녹번동 구청까지 행진하며 은평구의 자존심을 보여주고 있다.

297

298

299

300

301

302

298 ---------- 통일로 파발제 / 2019
299 ---------- 통일로 파발제 / 2009
300 ---------- 통일로 파발제 / 2006
301 ---------- 통일로 파발제 / 2004
302 ---------- 통일로 파발제 / 1996

1998년 11월, 은평문화원이 지방문화원법에 의해 설립 개원하였다. <은평향토사료집>과 <은평문화> <은평문예>등 책자발간을 비롯, 은평향토해설사양성전문교육과정, 늘푸른백일장, 은평학생미술실기대회, 사랑의도서나눔, 청소년예술제, 문화유적탐방, 늘푸른강좌 및 자서전쓰기 등 지역 향토문화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은 은평구 최초이자 유일한 대형공연장으로 많은 역할을 해냈지만, 지역적으로 쏠려 있는데다가 구청에 가려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303

303 ---------- 은평문화원 / 은평문화원 제공
304 ---------- 은평문화원 주관 청소년예술제 / 2018 / 은평문화원 제공
305 ---------- 늘푸른백일장 / 2019 / 은평문화원 제공
306 ---------- 9기 은평향토문화해설사과정 수료식 / 2019 / 은평문화원 제공

304

305

306

4 비상하는 은평의 21세기

불광천의 대변신 179
은평뉴타운 이야기 187
한(韓)문화의 메카 은평 195
다양한 면모를 자랑하는 은평구 도서관 203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209
은평구의 보물, 북한산 213
도시재생 으뜸 은평 산새마을 217
한반도 신경제 중심지역, 수색역세권 개발 223
사회혁신과 창의공간으로 거듭난 혁신파크 229
시민참여도시 은평 233

307

307 ---------- 겨울풍경 / 2004
308 ---------- 겨울풍경 / 2004

308

309 ---------- 은평구 전경(현 녹번동 푸르지오아파트 뒷산에서) / 2005 / 차철수 기증
310 ---------- 은평구 전경(현 녹번동 푸르지오아파트 뒷산에서) / 2005 / 차철수 기증

309

310

311 ---------- 백련산에서 본 은평구 / 2006 / 박중배 기증

312 ---------- 은평구 전경 / 차철수 기증

6호선 개통, 잘 알죠. 대림시장 길, 이 길이 원래는 응암오거리 끝까지 지하철이었어요. 상가분들이 장사 못 한다고 반대해서 건너간 거예요. 다리 건너면 응암역인데, 대림시장 길은 돈이 들고 개천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 정부에서는 이쪽으로 해줬지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응암오거리고 제일 번화가인데 역이 없으니까 죽은 길이 되잖아요. 우린 나가려면 버스 타야 되고. 이건 참 말 많은 지하철 개통이고 아쉽게 됐어요.

——— 서성희 응암동

313

313 ---------- 6호선 개통 / 2000 / 서울교통공사 제공
314 ---------- DMC역 정면 / 수색증산뉴타운 제공

1990년대의 마지막 2년 동안 은평과 주변 지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21세기 은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을 위해 1978년부터 사용되어 온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처리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월드컵경기장 유치도 확정되면서 난지도 일대를 '대북교류 거점 및 서북부지역 부도심'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난지도-상암동 일대는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가 이루어져 여의도의 뒤를 잇는 방송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로 변모하고, 인접한 은평도 큰 영향을 받으면서 수색증산뉴타운과 수색역세권 개발까지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은평구와 용산, 서울 동북부를 이어주는 지하철 6호선이 2000년 12월에 개통되면서 교통 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연속적으로 개통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3, 4개 노선이 통과하는 중요한 역으로 부상했는데 경의중앙선 부분은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다.

314

315

316

은평구청사 리모델링은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구청을 새롭게 고쳤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용산구청사는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여기는 새로 안 하고 리모델링만 했다고요.

——— 서성희 응암동

뒤이어 은평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은평뉴타운조성이 시작되면서 은평은 그 면모를 일신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은평뉴타운과 정반대 위치에 서있다 할 수 있는 산새마을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가 되었고, 주민들 사이에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도서관들이 특색있게 들어서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떠난 자리에는 서울시가 주도하는 혁신파크가 들어섰고, 국립한국문학관과 고전번역원의 유치도 이루어졌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수색변전소 역시 지중화되고, 서부터미널도 교통여건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면서 산업화시대를 상징하던 은평구의 시설들은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천년 고찰 진관사도 변신에 성공하여 템플스테이를 성공시켰고, 템플스테이의 공간인 함월당이 서울시 건축상을 받았다.

2009년 12월에 완성된 구 청사 리모델링 모범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불필요한 낭비보다는 효율을 추구하는 은평구다움을 보여준 이 사업은 청사 신축에 많은 예산을 소모하여 논란을 낳은 다른 구와는 차별화되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317

315 ---------- 은평구청사 별관 준공식 / 2008
316 ---------- 은평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 2008
317 ---------- 현재 은평구청 전경 / 2019

불광천의 대변신

특히 주목해야 할 은평의 변화는 불광천 복원사업이다. 불광천은 갈수기에 말라버리는 건천이어서 예전에는 생태하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했고 폐수가 흐르기도 했었다. 그러던 중 1999년 11월 불광천 복원계획이 발표되었다. 당시 목표는 '불광천을 포함해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부근 난지천, 홍제천을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 생태지구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318 ---------- 불광천 전경 / 2010
319 ---------- 불광천 공사 / 1975
320 ---------- 불광천 공사 / 1975

318

319

320

은평에 놀러 온 친구나 친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곳을 꼽으라면, 저는 잘 정리된 불광천을 산책장소로 권하고 싶어요. 다음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은평의 보물이 바로 불광천이에요.

——— 차철수 대조동

불광천은 아주 시커멓고 더러운 곳에 다리를 놓고 아주 깨끗하게 가꾸면서 불광천변이 됐잖아요. 지금은 벚꽃축제도 하고요. 이건 정말 잘 한 거예요. 여기에 심은 땅콩을 못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더러웠었어요. 그거를 싹 바꿔 놓은 거죠. 문화공간으로, 시민들 위한 곳으로 정말로 잘 한 일이에요.

——— 서성희 응암동

불광천 복원에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협치 차원에서 불광천을 어떻게 할 지 주요과제로 삼아 불광천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방안 과제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최승국 갈현동

321

322

323

324

325

321 ---------- 불광천 / 1995 / 곽미리 기증
322 ---------- 불광천 / 2004.4
323 ---------- 불광천 벚꽃맞이 구민 걷기대회 / 2009.4
324 ---------- 불광천 직강공사 준공식 /1 976.10.20
325 ---------- 불광천 직강공사 새미을노임소득사업 / 1976.3.31

326

하천 복원은 자연환경 보전과 친수환경 조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자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 악취를 줄였고, 수질개선, 정화기능을 통해 자생하는 불광천으로 거듭났다. 물길을 곡선형으로 만들어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연신내역 등 주변 4개 지하철 역사에서 배출되는 지하수와 독바위의 계곡수 등을 끌어들여 수량을 확보했다.

이후 불광천은 은평구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데이트 코스로 변모했다.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벚꽃길이 조성되었다. 그중에 벚꽃길은 '원조'격인 여의도 윤중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벚꽃 축제가 열릴 정도다. 불광천 주변은 북한산의 11개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담는다리, 레인보우다리 등 멋진 인도교들이 놓이면서 진화를 거듭했고, 아트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까지 들어섰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빵집, 라면집, 스시집 등도 성업 중이다.

지금 불광천 쪽을 좀 더 문화적인 시설로 만들고 있고, 너무 좋은데... 저도 원래 전공이 음악이다 보니 아직은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나 싶어요. 그런 공간이 조금 더 생겨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시설들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어요.

——— 박이레 대조동

326 ---------- 불광천 미꾸라지 방류 모습 / 2011
327 ---------- 포수마을 만화도서관 개관식 / 2014.7.24
328 ---------- 불광천생태학습체험장 / 2017.2.7
329 ---------- 제6회 불광천 벚꽃 축제 / 2017.4.9
330 ---------- 제7회 불광천 벚꽃 축제 / 2018.4.6
331 ---------- 불광천 레인보우다리 / 2010
332 ---------- 불광천 전경 / 2010

327

329

331

328

330

332

333

은평뉴타운 이야기

‘뉴타운’은 2002년 민선 3기를 맞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조금 단순화하면 강북의 ‘강남화’라고도 할 수 있는 뉴타운사업은 길음과 왕십리, 은평 3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중 은평뉴타운은 당시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로, 면적으로는 349만5248㎡이다. 이 사업은 2004년 12월 23일에 1단계가 착공되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형태를 조금 달리하며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333 ---------- 은평뉴타운 설경 / 2010
334 ---------- 기자촌 전경 /2003

334

제가 생각하는 은평의 자랑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은평뉴타운의 오늘날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의 롯데몰까지 있는 뉴타운은 정말 자랑할 만 합니다.

——— 김주환 진관동

은평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지역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활동해왔지요.

——— 최승국 갈현동

은평뉴타운이 신도시잖아요. 전통과 함께 공존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뉴타운이 되겠죠.

——— 양종승 은평구 샤머니즘박물관장

은평뉴타운 때문에 완전히 도시화된 거지요. 이 은평구를 아주 업그레이드한 건 굉장한 사건이고, 건설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뉴타운은 굉장한 혁신이에요.

——— 서성희 응암동

은평뉴타운이 예전에는 판자촌이었고 시설도 너무 낙후되고 불법 건물도 많았었어요. 완전 옛날 시골 모습들도 볼 수 있었죠. 지금은 180도로 바뀐 거죠. 구파발역 앞에 인공폭포가 있는데 그 앞 도로가 메인 도로였고, 원래는 다 산이었어요.

——— 조병권 갈현동

335

336

335 ---------- 은평뉴타운 개발전 / 2008.6.26
336 ---------- 은평구민체육센터에서 바라본 은평뉴타운 부지 전경 / 2006.10.10

은평구는 평균 거주 연수가 16년이래요, 다른 구는 8년이라고 하는데. 3,4대가 살고 지역색이 남아있는 곳이 은평이에요. 문화시설들이 약한 부분을 힘을 합쳐 보충해나간 기억들과 뉴타운이 생기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전부 다 철거해서 지금은 없어진 진관동의 옛 모습을 기억하려고 〈진관동 이야기〉를 만들고, 〈불광동 이야기〉도 만들었어요.

——— 김영미 응암동

337

338

339

340

2008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은평뉴타운에는 이제 6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은평뉴타운 총 인구수: 57,588명)

그 덕분에 진관동은 은평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 되었다. 은평뉴타운 내 대부분의 상가지구는 개발이 끝나면서 입점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된 롯데몰이 2016년 12월 오픈했다. 또한 808병상 규모에 지하 7층, 지상 17층, 연면적 179,353㎡로 서울 서부권 최대 규모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2019년 4월 1일 개원하여 대형병원이 없었던 은평 일대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337 ---------- 창릉천 / 1970년대 말 / 엄태평 기증
338 ---------- 진관동 모습 / 2003
339 ---------- 개발전 진관동 약수터(현 폭포동아파트) / 1991 / 권혜숙 기증
340 ---------- 진관동 메디텍고등학교 주변 전경 / 2004
341 ---------- 롯데몰 은평 / 2016
342 ---------- 현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전경

341

342

2019년 성모병원 개원으로 큰 병원의 혜택을 보게 되어서 개원날, 환자 등록을 첫 번째로 하려고 달려갔었어요.

——— 조태룡 불광동

성모병원은 최고죠. 은평뉴타운은 대형병원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성모병원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은평장례식장 자리에 일심병원이 있었는데, 은평구 주민들은 큰 수술을 거의 거기에서 했어요. 일심병원이 한방병원으로 바뀌고 한방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어요. 성모병원이 생기면서 너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동네의 격이 올라간 거죠. ——— 조병권 갈현동

성모병원 개원, 한국고전번역원 이전, 앞으로 들어설 국립한국문학관 등은 은평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정책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은평성모병원"의 개원입니다. ——— 김훈규 불광동

343

344

345

346

347

343 ---------- 기자촌 전경 / 2003
344 ---------- 30년 넘게 늘 변함없던 놀이터 원집 관형이네 / 2010 / 강상범 제공
345 ---------- 진관상회 / 2010 / 강상범 제공
346 ---------- 동네에 들어서는 어귀 / 2010 / 강상범 제공
347 ---------- 진입로에 자리잡은 종점슈퍼 / 2010 / 강상범 제공

한(韓)문화의 메카 은평

348

은평뉴타운은 신도시임에도 주변에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은평구와 서울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옥, 한식, 한복 등 '한(韓)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약 64만㎡ 규모의 한문화 체험 특구를 조성하여, 지난 2015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특구 지정을 받았다.

약 65,000㎡ 규모의 한옥마을과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천상병, 이외수, 중광 세 기인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셋이서문학관이 먼저 문을 열었다. 보기 힘든 2층 한옥 등 미래형 전통가옥이 대거 들어선 은평한옥마을은 아직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울 사대문 밖의 유일한 한옥마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존재가치가 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구 단위 박물관으로 보기 드문 공간이고 최근에는 한옥 전망대까지 갖추었다. 뒤를 이어 최근에는 역시 한옥으로 지어진 삼각산금암미술관과 한문화특구와 은평한옥마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너나들이센터가 문을 열었다.

은평의 한(韓)문화 체험 특구는 은평구의 품격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거의 사대문 안에 한정되어 있던 서울의 전통문화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은평 뉴타운과 한(韓)문화 체험 특구의 등장으로 은평구는 그야말로 대변신을 이루었다. 21세기 들어 풀뿌리 시민운동은 더욱 활발해져 그전에는 없던 도서관 문화가 태동하고, 생소했던 도시재생 사업이 은평구를 풍요롭게 만들기 시작했다.

349

350

348 ---------- 한옥마을 전경 / 2018.4.2
349 ---------- 진관동 한옥마을 북한산 전경 / 2016.10
350 ---------- 진관동 북한산 배경 한옥마을(왼쪽) 은평역사한옥박물관(우) / 2017.5.21

은평구에 새로 생긴 것 중 마음에 드는 곳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에요.

——— 박상범 대조동

한옥마을은 우리 전통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한옥마을에는 북한산 풍광이 있으니까 자연을 접하면서 전통의 모습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 큰 정신적 힘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 이재찬 불광동

351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전경 / 2018
352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개관준비 / 2014.3.6
353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전경 / 2018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4 ---------- 너나들이센터 '韓 문화의 봄' 특별전 개막식 / 2019
355 ---------- 셋이서문학관 한옥단지 전경 / 2013.8.19
356 ---------- 셋이서 문학관 전시회 기념행사 / 2015.10.21
357 ---------- 삼각산 금암미술관 전경
358 ---------- 삼각산 금암미술관

359

다양한 면모를 자랑하는 은평구 도서관

21세기 들어 은평의 도서관 문화는 독특하고 다양한 면모를 보이며 은평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 출발은 2001년 6월 불광동에 문을 연 은평구립도서관이다. 이 도서관 건물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수작이기도 하다. 회색 상자 모양의 노출콘크리트가 건물의 전부이지만, 묘하게도 새파란 하늘과 주변의 산, 나무와 잘 어울린다. 특히 옥상 쉼터에서 마주하는 회색 벽 사이의 공간에서 보이는 풍경이 무척 매력적이다.

2015년 구산동에는 도서관마을이 들어섰다. 2016년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은 이곳은 마을 안 골목길을 둘러싼 노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수리해서 만들었다. 기존의 마을 공간구조와 주민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도서관마을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발상도 참신했지만 구청과 '마을N도서관' 등 지역 내 5개 단체가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인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뜻을 모은 설립 과정도 훌륭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발주 이전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서관의 지향점을 설정한 점도 돋보였다.

2011년 12월에는 역촌동에 시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초록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건축업, 광고디자인업, 동화작가 등의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주민들이 기증한 도서 7천권으로 시작한 은평구 최초의 민간도서관으로 현재는 창립 당시보다 두배의 장서를 가지고 있으며 캘리크라피, 시 읽기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동네 사람들이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문화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360

주민의 힘이 모여서 구산동도서관마을이 된거죠. 구산동 도서관마을처럼 3,305㎡ 정도 되는 공간의 관리는 작은도서관 운영할 때와는 다른 역량을 요구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시민사회가 온몸으로 겪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도 사실은 위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3년 동안 매월 회의를 했거든요. 위탁 시점에 더 괜찮은 데가 있으면 구청은 거기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되든 안되든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우리동네 사람들만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동네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 모여 지금의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 김영미 응암동

우리 동네에 자랑하고 싶은 장소를 꼽으라면 구산동도서관마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처음으로 구산동도서관마을을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래된 빌라들을 수리하여 지은 곳이라 그런지 마치 집에서 독서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유모차나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도 마음에 들었고요. 기획전 코너에 구비되어 있는 책이나 문화프로그램도 좋았어요.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어린이 열람실은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 권성하 구산동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사업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고 주민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주택 건물 4채를 벽만 터서 합쳐서 지은 도서관이죠. 너무 좋은 행사도 많이 해요. 어른이 보기 좋은 소설류나 사회과학류 서적도 꽤 많아요. 논문 쓸 때 혹시 여기도 책 있냐고 검색해서 갈 때도 있었지요.

——— 우성희 구산동

2018년 6월에는 숭실이 낳은 민족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 인근에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이 개관했다. 이름은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 재학 시절 불광동 친구 집에 가는 길을 묘사한 시 '새로운 길'의 첫 구절로 시구를 차용한 국내 최초의 도서관인데, 이름 만큼 독특한 외관과 내부구조로 개관하자마자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은평구에는 공립 7개, 민간 72개, 총79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교회, 성당, 아파트단지, 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 만화, 영어 등 전문성을 갖춘 도서관도 적지 않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59 ---------- 은평구립도서관 전경 / 2017.9.15
360 ---------- 은평뉴타운 도서관 개관 / 2015.9.21
361 ---------- 구산동 도서관 마을 기공식 / 2014.4.10
362 ---------- 구산동 도서관 마을 준공 전 모습 / 2015.6.5

361

362

363

364

365

366

363 ----------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전경 / 2018.6
364 ----------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모습 / 2018.6
365 ----------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개관식 / 2018.6
366 ---------- 증산정보도서관 / 2018

367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은평구는 집현전 학사들이 활동했던 진관사에서부터 정지용, 이호철, 기자촌과 은평클럽으로 이어지는 문학적 전통을 내세워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에 성공했다. 유치서명 운동에 전체 구민의 절반 이상인 28만 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던 시기인 2016년, 은평구청은 그 일환으로 기자촌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고 노령에 접어든 기자촌 입주 언론인들을 초청해 당시를 회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은 회포를 풀며 기자촌 일대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로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현재 은평뉴타운 건설 지역 공사장의 차단벽에 그려진 수많은 문인 사진은 은평구의 문학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소개한 문인 외에도 쟁쟁한 작가들이 그 긴 벽을 장식하고 있다.

은평구민으로서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했다는 것을 은평문인들은 매우 자랑스러워 합니다. 분명 세계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 김삼동 구산동

그동안 생활해보니까 해가 갈수록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느낍니다. 국립한국문학관도 들어오고, 은평주민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 이재찬 불광동

367 ---------- 기자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Homecoming Day / 2016.6.2
368 ----------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전경 / 2018.10.31
369 ----------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전경 / 2018.11.13

368

369

370

은평구의 보물, 북한산

북한산 둘레길은 등반로가 아니라 기존의 샛길을 연결하고 다듬어서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저지대 수평 산책로로, 2011년 21개 전 구간 71.5km가 개통되었다. 은평구 구간은 7구간인 옛 성길 일부, 8구간인 구름정원길(북한산 생태공원 상단-진관생태다리), 9구간(진관생태다리- 방패교육대앞) 전부, 10구간 내시묘역길(방패교육대-효자동 공설묘지)등이다.

370 ---------- 북한산성 입구 한문화 페스티벌 / 2017.10.21
371 ---------- 북한산 생태공원 전경 / 2010.5.26
372 ---------- 북한산 생태공원 전경 / 2010.5.26
373 ---------- 46년간 단절되었던 서오릉고개-앵봉산 녹지연결로 / 2018.7.31
374 ---------- 43년간 단절되었던 녹번동-응암동 생태연결로 / 2015.4.4.

371

372

373

374

2011년 북한산 둘레길 개통으로 편안하고 멋진 산책을 거주지 가까이서 할 수 있게 되어 다른 구에 사는 친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은평구의 보물은 뭐니뭐니 해도 "북한산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을 재정비 해서 주민의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 조태룡 불광동

은평구에서 좋아하는 장소는 북한산 둘레길입니다. 계곡이 있어서 여름에 놀러가기 좋아요.

——— 전예슬 갈현동

은평구가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사방이 산으로 싸여져 있어요. 삼각산, 북한산 변은 제대로 보전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은평의 보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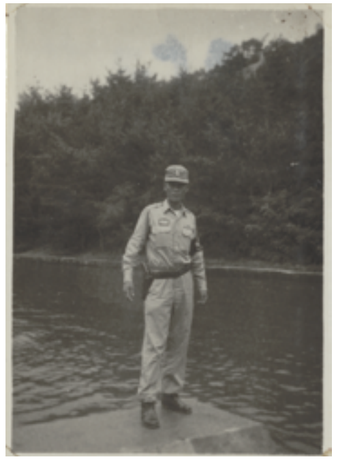
——— 최준호 역촌동

1971년 여름에 북한산 계곡으로 피서를 갔습니다. 북한산이 참 좋은 산이에요. 이 지역에서 가는 곳은 서오릉 아니면 북한산이지요.

——— 김일상 응암동

375 ---------- 독박골풀장에서: 차무달 대위 / 1952 / 차철수 기증
376 ---------- 독박골풀장에서: 차철수 차무달 형제 / 1952 / 차철수 기증
377 ---------- 독박골풀장에서: 차철수 차무달 형제 / 1952 / 차철수 기증

375



376

377

378

379

378 ---------- 북한산계곡 12년 전 계곡에서 아버지와 아들 딸과 함께 / 1983 / 김일상 기증
379 ---------- 북한산 / 1999 / 전예슬 기증
380 ---------- 북한산계곡: 친구들과 함께 / 1971 / 김일상 기증
381 ---------- 북한산계곡: 친구들과 함께 / 1971 / 김일상 기증

380

381

382

도시재생 으뜸 은평 산새마을

신사2동에 위치한 산새마을은 1960년대 후반 망원지역 수재민들이 이주해온 지역이다. 1968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들어졌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약 80%에 달하고, 2012년 기준으로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가 절반이 넘는 낙후지역이었고, 고령증 주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2011년 은평구의 도시재생사업인 '두꺼비하우징' 시범사업지역으로 산새마을이 선정되고, 2012년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지로 지정되어 사업비 27억 3,700만 원이 투입되었다. CCTV와 보안등을 대거 설치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자 마을은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계기로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주민들은 30년간 방치됐던 개 사육장과 도축장, 쓰레기와 오물로 인한 악취와 해충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나대지를 직접 정비해 1,600㎡ 규모의 공동 텃밭인 '산새텃밭'(산새마을농원)을 일구어냈다. 이 마을의 자랑거리는 고구마 캐기, 배추 심기 등 활력 넘치는 체험활동으로 수확물의 일부는 무료급식소에 지원한다.

마을회관인 '산새둥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거점공간이자 마을관리, 일자리 창출, 집수리 지원 등 마을의 사회·경제적 재생지원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산새둥지 1층에는 북카페와 공동육아방, 2층에는 청소년을 위한 배움교실, 3층에는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섰고, 둘레길 탐방객의 쉼터로도 쓰인다. 지역 육아모임과 청소년 동아리, 어르신 노래교실 등도 이곳에서 열린다. 화요밥상, 목요일 마을회의 등 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적은 비용으로 집을 고쳐 사용하는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벌여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공사 범위와 공사비 등을 상담해주는 서울시집수리닥터단이 투입됐고, 주민이 직접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집수리아카데미도 운영한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마을에 들어와 활기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에 참여할 청년활동가를 위한 셰어하우스형 두레주택이 들어섰다.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산새마을은 이제 도시재생에 나선 많은 이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은평구, 아니 서울시 전체에서도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자리 잡았다.

383

은평구에 거주하게 된 계기는 산새마을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먼저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는데, 한달 동안 폐기물이 30톤이나 되었습니다. 구청 관계부서 직원들과 힘을 합쳐 기계차 2대를 활용해 하루 종일 치웠습니다. 기계로 다 실을 수 없어 손으로도 날랐습니다. 분리도 해야 하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20명 정도가 계속 나와서 주말에도 해서 한달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처 집에서 국수도 끓여 먹고, 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자장면도 시켜먹었습니다.

——— 윤전우 응암동

처음에는 트럭 한 두 대 정도로 생각했지만, 폐기물의 양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60~80년대 오면서 서울에 택지라는 곳이 없어서 판잣집 짓고, 구들 놓고 살았습니다. 개 도축장 때문에 개털이 묻어 있어서 산새마을에서 나는 거, 파는 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청소해 보니 개목줄, 쇠목줄만 한 자루 이상 나왔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흙 뒤집으며 찾은 목줄은 고철로 팔려고 모아두었지요. 100개 가까이 되었어요. 10년 가까이 개를 잡았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나이든 동네 어르신들이 손을 못 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석면과 슬레이트 등도 묻혀 있었습니다. 특수폐기물을 밀봉할 수 있는 가마니 20개로 치웠습니다.

갈등은 당연히 있었지요. 이걸 치우고 나면 그 땅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죠. 빈 공간은 다시 쓰레기로 채워질 테니 무언가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과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고정관념과 시선이 있어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엔 꽃밭을 하려고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씨를 사다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모종을 만들어서 키웠고 코스모스는 뿌렸는데 뿌리다 보니 꽃밭을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었습니다. 부당한 편견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개인 수확물로 처리하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수확물로 마을 잔치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 윤전우 응암동

384

385

382 ---------- 산새마을 전경 / 2017
383 ---------- 산새마을 공동체 / 2013
384 ---------- 산새마을 철소모습 / 2012
385 ---------- 산새텃밭 / 2016

신사동은 도시같지가 않고 이웃 간 정이 느껴지는 동네라서 좋았어요.

——— 김영숙 신사동

386 ---------- 산새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기공기념 마을잔치 / 2014.9.26
387 ---------- 마을재생 및 주민성과로 이루어낸 봉산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 2015
388 ---------- 중산로379(신사동338-1)앞 불광천을 가로지르던 다리 / 1959
389 ---------- 신사동 집 아버님 회갑잔치 / 1960년대 / 김성민 기증
390 ---------- 숭실고등학교 신사동부지 토목공사(옛 고택골) / 1973 / 숭실고등학교 제공
391 ---------- 신사동(현 덕산중학교 근처) / 1965년대 / 김성민 기증

386

387

신사동은 봉산의 산줄기를 경계로 상신, 중신, 하신이라 하고 상신쪽을 새락골, 중신과 하신쪽은 고택골이라 했어요. 고택골에는 화장장과 공동묘지가 있었고요. 사람이 죽으면 이곳에 묻히기 때문에 '고택골로 갔다'는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곤 했지요.

——— 김성민 신사동

마을에 새절(신사)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신사동'. 이곳에는 풋나무골, 고택골, 배나뭇굴, 새력굴 등 옛 지명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신사동 300번지 일대를 일컫는 '고택골'은 고려 말 고태(高太)장군이 나라에 공을 세워 하사받은 땅으로, 자손이 없어 대가 끊기며 사람들이 대신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유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388

389

390

391

392

393

한반도 신경제 중심지역, 수색역세권 개발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민선7기 들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수색역은 경의선 출발지인 만큼 통일시대 관문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서울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상징적 여건과 더불어 다가올 남북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바로, 경의선의 출발역인 수색역 일대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한반도 평화경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다. 통일시대 국제화물 운송 거점은 물론, 한반도 신경제의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색역세권 개발은 은평구와 마포구를 잇는 수색교부터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이르는 32만m² 가운데 운행 철로를 제외한 22만m²에 업무공간과 문화·관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7000억 원이다. 수색역세권 개발 1단계는 DMC역 위쪽 약 2만m² 터에 복합쇼핑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2020년에 세부개발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변방의 은평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갈 수색 역세권 개발은 매우 고무적이다. 서울 서부의 관문다운 면모를 과시하게 될 은평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394 | 395

392 ---------- 1980년도 후반 수색철교
393 ---------- 1980년도 이후 수색철교
394 ---------- 상암동에서 바라본 수색역과 DMC역 일대 야경
395 ---------- 1970년도 이전 수색역을 달리던 미카3 기관차
396 ---------- 수색로12가길23 서부교회
397 ---------- 수색역전 육교에서 바라 본 남동방향의 서부시가지
398 ---------- 은평터널로2길 1번지 수색할머니노인정
399 ---------- 수색로 256 수색마트

396

397

398

399

증산동에서 68년을 거주했어요. 집 가까이에 산이 있어 공기가 좋고 풀내음이 가득한 우리 마을이 최고죠.

———최일숙 증산동

수색은 이웃 간의 풋풋한 정이 시골 고향과도 같이 느껴지는 동네입니다. 개발이 되어도 우리 마을 정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국 수색동

401

400

402

403

400 ---------- 수색로18길 48번지 집앞 평상에서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
401 ---------- 수색로 293번지 성광빌딩에서 바라본 수색동 수색로20길 모습
402 ---------- 은평터널로1길 6번지 (수색약수터길 4번지) 한전아파트
403 ---------- 은평터널길 골목끝에서 바라본 수색동 전경
404 ---------- 증산로9길 26-3 증산동경노당
405 ---------- 은평터널로 27 수색동주민센터 옛청사
406 ---------- 증산로9길4 서울탁주서부연합제조장 전경
407 ---------- 문영마운틴 아파트에서 바라본 증산2교
408 ---------- 수색역에서 바라본 수색동 전경

404

405

406

407

408

409

사회혁신과 창의공원으로 거듭난 혁신파크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그 부지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건립,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40층 규모의 랜드마크빌딩 건립 등 다양한 계획이 제안되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유치도 거론되었지만 오래 가지 못해 사장되었다. 그러다가 '서울혁신파크'라는 시스템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서울혁신파크에는 혁신가들의 사무공간이 들어선 미래청을 중심으로, 생활목공기술을 배울 수 있는 '목공동'을 비롯하여 3D프린터 등으로 일상에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드는 '메이커'들의 공간 '제작동', 도시 안에서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나누는 '맛동', 버려진 자원의 새로운 쓸모를 고민하는 '재생동' 외에도 예술동, 참여동, 극장동, SeMA창고 등 8개의 공간이 들어섰다.

정문 앞 피아노숲과 혁신광장, 혁신가의 놀이터 등 야외공간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이 밖에도 더 나은 청년의 삶을 꿈꾸는 '서울시 청년허브', 50플러스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마을공동체의 연결과 성장,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발전을 돕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입주했다. 새 건물을 지어 입주한 서울기록원은 '잘생겼다 서울'의 새 멤버로서 문화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혁신센터 내 대부분의 기관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공개된 열린 공간이다. 사실상 대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은평구 주민들에게는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다. 서울혁신파크는 전국에 산재한 '밸리'나 '파크'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자, 많은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다.

다른 곳에 사는 지인이나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로는 〈혁신파크〉를 무조건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은평구 주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은평구에 대학이 없다, 캠퍼스가 없다 입니다. 저는 혁신파크에서 캠퍼스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유롭게, 누구는 연구하고 누구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쉴 수 있고 누구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활동들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 이신애 불광동

410

411
412

413

409 ---------- 혁신파크 전경 / 2018
410 ---------- 혁신파크 입구 / 2019.8
411 ---------- 혁신파크 공유동과 연결동 / 2019.8
412 ---------- 혁신파크 내 서울기록원과 50+캠퍼스 / 2019.8
413 ---------- 혁신파크 미래청 전경 / 2019.8

414

415

시민참여도시 은평

고난의 연속이었던 20세기, 우리 나라는 독립운동, 산업화, 민주화, 문화발전,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통일을 제외하면, 2차대전 후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은평구는 지금까지 보아왔듯 이런 시대적 과제를 치열하게 수행해 온 공간이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는 '탈산업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 탈산업화 시대는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주도하던 산업화 시대와는 달리 지방분권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사회이다.

은평구는 이런 시민들의 참여와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구 중 하위권이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은 서울시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은평구민의 따듯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예 중 하나이다.

은평구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모범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전국 지자체 예산 효율화 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최우수 자치단체에 2016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었고, 2019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 마을자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2010년 시작된 '은평누리축제'는 매년 가을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은평문화예술회관, 불광천, 역촌역 일대 등 은평구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열려 은평시민사회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소통과 상생, 공유와 협동이라는 시대 정신을 잘 알고 실천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은평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416

417

414 ---------- 참여예산 주민총회 / 2019
415 ---------- 참여예산 청소년총회 / 2019
416 ---------- 은평누리축제 / 2010
417 ---------- 은평누리축제 / 2011
418 ---------- 은평누리축제 / 2014
419 ---------- 은평누리축제 / 2015
420 ---------- 은평누리축제 / 2017

418

419

420

에필로그 239
부록 1 서울미래유산 240
부록 2 백년가게 243
부록 3 이야기수집단 및 인터뷰이 244
사진 기증 및 협조기관 246
참고문헌 247
사진색인 248

에필로그

은평구의 도시브랜드(BI)는 '북한산 큰 숲, 은평'이다. 말 그대로 북한산의 정기가 어우러 만들어진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북한산 둘레길, 사람 냄새 가득한 골목 상가들, 코끝으로 스치는 쾌적한 공기 등 은평구를 사랑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최근 들어 은평구에는 혁신파크에 서울기록원이 문을 열고, 은평뉴타운에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자리를 잡았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통일박물관 유치도 유력한 상황이다. 도서관마을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문화도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은평의 교통문제를 개선할 여러 교통 정책이 추진되면서 은평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은평구가 서울과 경기의 서북권을 아우르면서, 그 중심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은평구가 북한과 대륙으로 나가는 서울의 서쪽 관문으로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수색 역세권 개발은 그 시작이기도 하다.

은평구에서 21세기의 진정한 성장 동력인 문화산업이 꽃 피고, 남북 교류의 중심이 될 미래가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란 과거의 축적이며, 미래는 현재의 결과라는 명언이 있다. 이 책이 지난 은평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미래의 발전에 조그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서울미래유산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세대에게 전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을 의미하며, 시민, 전문가 그룹, 자치구 등으로부터 수집된 미래유산 후보 기초 조사 및 심의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함. 은평구에는 6개의 서울미래유산이 있음 (2019년 기준).

불광 대장간

1963년경 개업하여 같은 지역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물점(대장간). 현재까지도 옛 방식 그대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네 다섯시간 쇠를 두드려서 작은 도끼 하나를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제품은 기계로 만드는 제품에 비해 쇠의 구조가 촘촘하고 치밀하다고 한다.

불광동 성당

1986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의 불광동성당은 대건축가 김수근의 3대 종교 건축물 중 하나이다. 건축미와 종교적 조형미를 동시에 추구하여, 잘 조화시켜 한국 근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존재로써 한국 100대 건축물에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어 더 돋보이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청기와 양복점

1973년 개업하여 같은 장소에서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맞춤형 양복점. 황재홍씨가 개업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아들 황필승씨가 재단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2대째 양복점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도 이곳엔 장인의 손길을 찾는 오랜 단골손님들이 많다.

형제 대장간

형 상준 씨는 10년 동안 모래내에서 대장장이 기술을 익힌 뒤 1976년 서울 암사동에서 독립해 처음 대장간을 차렸다. 그 뒤 모래내로 옮겼다가 1997년 수색에 자리잡았다. 이 때부터 동생이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형제대장간' 간판을 달았다. 형제대장간이 이곳에 문을 연 지 22년이 되었고 지금도 전국에서 이 곳을 찾는 단골이 많다.

산새마을

재개발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극복하기 위해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기가 실시된 지역. 2011년 마을공원, 생태길이 조성되었으며 마을 내에 보안 CCTV등이 설치되었다. 2012년에는 텃밭 가꾸기를 진행했고 주민 구성의 텃밭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생산물 판매와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마을사랑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운영위원회 모임과 마을지킴이를 구성했다. 마을 곳곳의 아기자기한 벽화도 눈길을 끈다.

장용학 가옥

장용학 가옥은 전후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설가 장용학의 집필공간으로 그의 자취를 되새길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1970년부터 1999년 장용학이 타계할 때까지 기거한 이 집에는 현재 고인의 미망인이 거주하고 있다. 장용학은 현대의 비인간적 상황을 관념적인 문장으로 서술하여 관념소설이라는 새로운 계보를 만들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단편 '하여가행' 등을 이곳에서 집필하였고 소설과 장용학의 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

백년가게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도·소매점 및 음식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은 점포로,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함. 은평구에는 3개의 백년가게가 있음(2019년 기준).

만석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서문길 43-10

3대째 가업을 이어 북한산의 자연 속에서 반세기의 전통과 역사를 정직하게 이어가고 있는 두부요리 전문점. 만석장은 '돌이 많은 곳에 별장 같은 집'이란 의미로, 1960년대부터 북한산성 계곡에서 식사와 추억을 만들어 드리던 공간이다.

새만포면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71

평양냉면의 자존심을 걸고 2대째 운영중인 곳. 초창기에는 구파발에 위치했다가, 현재는 구산동에서 많은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차돌양지를 푹 고아 만든 육수에 동치미를 섞은 질기지 않은 메밀냉면과 녹두지짐, 이북식 백김치 등이 대표 음식이다.

형제상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54-3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전문점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들려보면 좋은 곳. 온라인 상에서는 오형제상사로 통한다.

이야기수집단 및 인터뷰이

이야기 수집단

강은주	역촌동, 2011년부터 거주, 9년
권기태	진관동, 2000년부터 거주, 20년
권혜숙	불광동, 1956년부터 거주, 64년
김삼동	구산동, 1992년부터 거주, 28년
김인옥	진관동, 1980년대 말부터 거주, 30년 이상
김정희	진관동, 1966년부터 거주, 54년
신미경	진관동, 2018년부터 거주, 2년
안명옥	갈현동, 1993년부터 거주, 27년
안수정	역촌동, 2018년부터 거주, 2년
안영삼	구산동, 2015년부터 거주, 5년
이다혜	대조동, 2017년부터 거주, 3년
인성분	갈현동, 1985년부터 거주, 35년
조계향	불광동, 1990년대 초부터 거주, 28년 이상
황권영	갈현동, 1997년부터 거주, 23년

인터뷰이

고경석	진관동, 1975년부터 거주, 45년
권성하	구산동, 2015년부터 거주, 5년
김명숙	증산동, 1989년부터 거주, 30년
김미화	녹번동, 1993년부터 거주, 27년
김영미	응암동, 1975년부터 거주, 45년
김영숙	신사동, 1982년부터 거주, 37년
김일상	응암동, 1959년부터 거주, 61년
김성민	신사동, 1952년부터 거주, 68년
김주환	진관동, 1937년부터 거주, 83년
김훈규	불광동, 1973년부터 거주, 46년
나두혁	타지역, 1999년~2015년 거주
노명우	타지역, 은평구 니은서점 운영
문명희	갈현동, 2000년부터 거주, 20년
박부영	진관동, 1977년부터 거주, 43년
박상범	대조동, 1969년부터 거주, 51년
박이레	대조동, 1991년부터 거주, 29년
박종배	응암동, 1994년부터 거주, 26년
서성희	응암동, 1974년부터 거주, 46년
서애란	대조동, 1965년부터 거주, 55년
양종승	타지역, 은평구 샤머니즘박물관 관장
엄태평	진관동, 1974년부터 거주, 46년
오경자	진관동, 1970년부터 거주, 50년
우성희	구산동, 2013년부터 거주, 7년
윤전우	응암동, 2013년부터 거주, 7년
이기식	신사동, 1989년부터 거주, 30년
이경환	수색동, 1970년부터 거주, 49년
이신애	불광동, 1973년부터 거주, 47년
이재찬	불광동, 2010년부터 거주, 10년
전예슬	갈현동, 2001년부터 거주, 9년
정진국	수색동, 1959년부터 거주, 60년
조병권	갈현동, 1990년부터 거주, 30년
조용민	갈현동, 1989년부터 거주, 31년
조태룡	불광동, 1969년부터 거주, 51년
지용석	불광동, 1980년부터 거주, 40년
차철수	대조동, 1938년부터 거주, 82년
최일숙	증산동, 1951년부터 거주, 68년
최승국	갈현동, 1992년부터 거주, 28년
최준호	역촌동, 1941년부터 거주, 79년
하형승	갈현동, 1999년부터 거주, 21년
홍미경	갈현동, 1999년부터 거주, 21년
황필승	타지역, 은평구 청기와양복점 운영

사진 기증 및 협조기관

국가기록원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교통공사

서울역사박물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은평문화원

은평구립도서관

은평뉴타운도서관

다문화박물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수색초등학교

신도초등학교

동명여자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갈현노인복지관

역촌노인복지관

은평성모병원

엔젤스헤이븐

삼천사

진관사

수국사

만석장

만포면옥

형제상회

차철수 님

이경환 님 외 다수

향토사료 고증

은평향토교육협동조합 이사장 정난호

은평구향토해설사 5기 회장 김성민

은평구향토해설사 정철식

참고문헌

뿌리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근현대 서울의 집

은평구, 물빛 고운 동네 수색, 증산 2011 뉴타운지역 조사 기록 보고서

은평구, 성장과 발전 그리고 힘찬 비상 1979-2009 은평구

은평구, 은평구지, 2001

은평문화원, 토박이와 함께 하는 은평 산책, 은평향토사집 15

은평문화원, 은평의 토박이 여성 문인들, 은평향토사집 17

이정은, 고양독립운동사, 광복회 고양시지회

한종수 · 김미경,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프시케의 숲, 2018

사진색인 연도별

연도	사진명	P
1910	진관사 황성기독교청년회 하령회	16
1934	응암교회 /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응암리 181번지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응암교회의 모습	30
1930~40년대	수색초등학교 교사전경	50
1940	불이농장 전경	42
1940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초 불광리 닭장뒷집 불이농장사택에서 차철수일가	45
1943	불이농장: 여름 불이농장에서 밭 매는 모습(현 불광1동 현대APT 일대)	43
1943	불이흥업주식회사: 양계장과 양돈장에서 사용하는 차량	45
1945	은평초등학교 조회 전경	48
1945	은평초등학교 14회 졸업기념 개천절 봉축 학예회	48
1945	은평초등학교 14회 6학년 여학생 일동	49
1945	은평초등학교 14회 6학년 남학생 일동	49
1948	수색초등학교 11회 졸업식	50
1948	대조동 불광1동 옛 국민주택 모습(현재 현대홈타운)	64
1950 이전	진관사	17
1950년대	녹번리	54
1952	독박골풀장에서: 차무달 대위	214
1952	독박골풀장에서: 차철수 차무달 형제	214
1952	독박골풀장에서: 차철수 차무달 형제	214
1954	응암동 163번지에서 바라본 은평구 전경: 멀리 바라보이는 들판이 현 역촌동 구산동 대조동 갈현동 일대	54
1954	은평	55
1955	중종 숙의 나씨묘에서 바라다 보며 찍은 현재의 증산동 새마을 금고 본점(조선기와집)의 모습	54
1955	냉정골 전경(현 응암1동)	54
1956	응암교회 / 신축광경	30
1956	은평	60
1956	녹신동 사무소 직원 및 통장 일동	60
1956	녹번동 응암1동 여름 전경	60
1956	수색동 전경: 초가와 기와가 함께 어우러져있다	61
1956	수색동 전경: 전쟁 후 이곳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정착했다고 한다	61
1958	응암교회 / 응암동 6-1 건축하는 모습	30
1959	서오릉	23
1959	은평천사원	58
1959	은평천사원	58
1959	은평천사원	58
1959	응암동 수재민집마당 누나들과	67
1959	응암동 수재민집마당 메리와	67
1959	증산로379(신사동338-1)앞 불광천을 가로지르던 다리	221
1960대 초	수색변전소: 수색변전소 근무한 지병호님	36
1960	역촌동 구획정리사업 당시	62
1960	독박골 이재민촌(현 불광동 현대APT 일대)	64
1960	중학생들이 서오릉으로 소풍가는 모습	66
1960	수색동 정착민에게 구호미를 전달하는 모습	67
1960	응암동 마약중독자 치료소 준공	70
1960	응암동 마약중독자 치료소 준공	70
1961	서오릉: 고갯길을 넘어가는 학생들	23
1961	서오릉 가는 길: 궁말앞 길	23
1961	응암교회 돌예배당 신축공사	30
1961	수색동 천막동 모습	67
1962	한국여성개발원 청사신축공사 기공식	124
1962	한국여성개발원 청사신축공사 기공식	124
1963	불광동 ICA아파트	63
1963	불광극장(1983년 폐관)	102
1963	불광극장 내부(1983년 폐관)	103
1964	국립보건원(흰건물) 녹번동과 불광동 전경	124
1965	신사동(현 덕산중학교 근처)	221
1966	홍제동, 녹번동 도로확장공사	86
1966	홍제동, 녹번동 도로확장공사	86
1966	홍제동, 갈현동 간 도로확장공사 기공식	86
1967	양천리 유래비	18
1967	서오릉: 불광초등학교 소풍	23
1967	은평초등학교 졸업식: 동생 졸업식에 형제들과	48
1967	응암동 시립아동보호소 운동회	71
1967	응암동 시립아동보호소 운동회	71
1967	응암동 시립아동보호소 운동회	71
1968	은평 전경	12
1968	서울지구 철도시설확장 수색차량기지신설기공식	32
1968	불광동성당: 입학기념 형제들과(김수근 건축 전 뾰족성당 시절)	128
1969	중종 숙의 나씨묘를 증산동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이장하고 난 후 제사 지내는 모습	28
1969	예일학원 구산동 8-3 신축이전	83
1969	한국기자협회택지조성기공식	106
1969	한국기자협회택지조성기공식	107
1969	녹번동 안장박골 돌산위에서: 녹번, 불광, 갈현, 대조동 배경	63
1960년대	수색변전소: 나원습씨 집 뒷편으로 보이는 수색변전소	36
1960년대	은평천사원	58
1960년대	신사동 집 아버님 회갑잔치	221
1960후-70초	수색대장간 나원습씨 대장간	77
1960후-70초	수색대장간 나원습씨 대장간	77
1970	증산동 205-8 초가집 안마당 우물	25
1970	증산동 205-8 초가집 사랑채	25
1970	동명학원 교정	82
1970	녹번 수색 도로확장공사: 녹번 삼거리에서 수색간 도로 확장 공사	87
1970	녹번 수색 도로확장공사: 도원극장과 서부 오토바이 상사 앞 도로 확장 공사 모습	87
1970	서부오토바이상사 앞에서 강화로 출발하기전 회원들의 모습 뒤로 보이는 1970년 도원극장	102
1971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녹번동 일대	112
1971	중앙의 큰 건물 도원극장(현 은평구청 및 은평문화예술회관)	112
1971	국립보건원 (현 혁신파크 일대)	124
1971	북한산계곡: 친구들과 함께	215
1971	북한산계곡: 친구들과 함께	215
1972	삼표연탄공장	78
1972	한일연탄공장	79
1972	녹번 삼거리에서 새동리 도로 확장 공사 전경	87
1972	응암2동 홍은3동 기간도로 기공식	88
1972	응암2동 홍은3동 기간도로 기공식	88
1973	신도초등학교 교사전경	46
1973	수색초등학교 운동회	50
1973	신도초등학교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교실풍경	51
1973	은평공민학교 개교식	69
1973	은평공민학교 개교식	69
1973	은평공민학교 개교식	69
1973	은평공민학교 개교식	69
1973	숭실고등학교 신사동부지 토목공사(옛 고택골)	83/221
1973	증산-수색 도로확장공사	84
1973	증산-수색 도로확장공사	89
1973	진관동사무소 개청식	105
1974	수색초등학교 앞 수일시장 골목까지 제설작업	92
1975	신창이발관 앞에서 찍은 사진(진관동 148-12)	68
1975	응암동 소년의 집 개관식	70
1975	응암동 소년의 집 개관식	70
1975	불광1동-불광2동 도로개설 공사 기공식 불광동 전경	90
1975	은평육교 준공식	90
1975	불광1동-불광2동 도로개설 공사 기공식 불광동 전경	91
1975	불광천을 가로질러 신사동과 녹번동을 잇는 신사교	91
1975	은평육교 준공식	91
1975	은평육교 준공식	91
1975	응암1동 신축 동사무소 준공	104
1975	응암1동 신축 동사무소 준공	104
1975	녹번동 서부소방서 개소식	104
1975	녹번동 서부소방서 개소식	104
1975	은평출장소 대조동 청사 준공식	105
1975	불광천 공사	179
1975	불광천 공사	179
1976	불광천 직강공사 준공식	181
1976	불광천 직강공사 새마을노임소득사업	181
1977	신도초등학교 큰아들 졸업식	51
1978	숭실고등학교 전경	83
1978	은평출장소 충암중고교 간 도로개설	90
1978	대림시장 입구	94
1979 이전	수색역	33
1979	은평천사원	58
1979	은평구 승격 및 청사 기공식	118
1979	은평구 승격 및 청사 기공식	119
1979	한양주택	121

연도	사진명	P
1979	한양주택	121
1979	한양주택	122
1970년대	수색초등학교 전경	50
1970년대 말	창릉천	190
1980	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 손님을 맞는 걸스카웃 학생들	82
1980	은평구청사 준공	120
1980	은평구청사 준공식	120
1980	은평구청사 준공식	120
1980	은평구청 앞 제일식당에서	137
1980년대	은평천사원 김장하는 모습	59
1980 이후	수색역	33
1981	예일여자고등학교 교정 학생들	83
1981	수색동 삼익유통 종합구판장 개장	101
1981	수색동 삼익유통 종합구판장 개장	101
1981	진흥로 138-20(녹번동 141-32) 단독주택 안 가족사진	130
1982	신도초등학교 음악수업	51
1982	신도초등학교 입학식	51
1982	신도초등학교 청소모습	51
1982	불광3동의 전경 왼편에 진성아파트	135
1982	연신초등학교에서 보이는 맞은편 진성아파트	135
1983	수색초등학교 교사전경	47
1983	대조시장 입구	96
1983	진흥로 9-3(역촌동 44-7) 오빠와 집 앞에	132
1983	북한산계곡 12년 전 계곡에서 아버지와 아들 딸과 함께	215
1984	구산동 마리아 수녀회 갱생원 개원	68
1984	구산동 마리아 수녀회 갱생원 개원	68
1984	신사2동 앞마당	132
1985	3호선 개통 지축차량기지 전동차 반입식	126
1985	3호선 개통 지축차량기지 전동차 반입식 불광역	127
1985	서부간선도로 기공	129
1985	서부간선도로 기공	129
1985	은평구 제일뷔페 앞에서	137
1985	개발전 수색부근 야외스케이트장	154
1985	개발전 수색부근 야외스케이트장	154
1980 말	응암동 부녀회장 시절	136
1980 말	응암동 부녀회 연중행사였던 군부대 봉사 서오릉 근처 군부대	136
1980 말	은평구청 앞 응암3동 부녀회원들과	136
1990	단독주택단지 전경	133
1990	단독주택단지 전경	133
1990	단독주택단지 전경	133
1990	미성아파트가 보이는 전경	134
1990	은평구 전경	138
1990	불광중학교 부근 개발전 논	139
1990	은평구 전경	140
1990	은평구 전경	140
1990	은평구 전경	141
1990	은평구 전경	141
1990	은평구 전경: 거북바위에서	142
1990	서부경찰서	145
1990	서부 서울우체국	145
1990	서부세무서	145
1990년대	녹번 삼거리 도로 모습	87
1990년대	여성개발원과 국립보건원 전경	125
1991	은평구의회 개원식	144
1991	은평구의회 개원식	144
1991	개발전 진관동 약수터(현 폭포동아파트)	190
1995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보물 657호)	14
1995	은평구민한마음축제	156
1995	은평구민한마음축제	156
1995	광복50주년 국토순례단 환영식	157
1995	불광천	180
1996 이전	은평문화예술회관 개관전	158
1996	삼각산 적멸보궁 삼천사	14
1996	연신내 범서 쇼핑 센터	100
1996	대조동 양지극장	102
1996	응암2동 한복시네마	103
1996	은평구 전경	143
1996	은평구 전경	143
1996	제1회 은평구민의날	156
1996	제1회 은평구민의날	156
1996	구산 거북경로당 개관식	157
1996	구산 거북경로당 개관식	157
1996	지금은 사라진 서부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모습	157
1996	은평문화예술회관 개관	158
1996	통일로 파발제	161
1997	신도초등학교 근처풍경	51
1997	한양주택	121
1997	은평구 보건소 진료모습	156
1997	은평구 보건소 예방접종	156
1997	구립 녹번어린이집 준공	157
1998	은평구의회 의원 연찬회	144
1999	북한산	215
2000	대조시장 입구: 83년의 강화상회는 그대로이나 뒤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96
2000	6호선 개통	174
2000년대	한양주택 모습	123
2000년대	한양주택 모습	123
2000년대	한양주택 모습	123
2003	통일로 기념비	85
2003	기자촌 전경	187
2003	진관동 모습	190
2003	기자촌 전경	192
2004	금성당 내부	26
2004	통일로 파발제	161
2004	겨울풍경	166
2004	겨울풍경	167
2004	불광천	180
2004	진관동 메디텍고등학교 주변 전경	190
2005	은평구 전경(현 녹번동 푸르지오아파트 뒷산에서)	168
2005	은평구 전경(현 녹번동 푸르지오아파트 뒷산에서)	168
2006	금성당	26
2006	수색 구룡길 입구	155
2006	수색초교 앞	155
2006	통일로 파발제	161
2006	백련산에서 본 은평구	171
2006	은평구민체육센터에서 바라본 은평뉴타운 부지 전경	188
2008	은평구청사 별관 준공식	176
2008	은평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176
2008	은평뉴타운 개발전	189
2009	태극기 / 진관사 문화재 설명회	40
2009	태극기 / 진관사 문화재 설명회	41
2009	특별기획전 3.1혁명과 백초월 개막식	41
2009	특별기획전 3.1혁명과 백초월 개막식	41
2009	특별기획전 3.1혁명과 백초월 개막식	41
2009	삼표연탄공장	78
2009	한일연탄공장	79
2009	통일로 파발제	161
2009	불광천 벚꽃맞이 구민 걷기대회	180
2010	수색로304_1번지	34
2010	수색로22가길4번지마당	34
2010	수색로320-1번지	34
2010	느티나무길10번지	34
2010	수색로22길 2-12번지	34
2010	수색로320-14번지	34
2010	수색변전소: 수색변전소 직원숙소(옛 관사)	36
2010	수색변전소: 수색변전소 입구	37
2010	수색변전소: 메디컬 빌딩에서 수색변전소	38
2010	평화공원 준공	56
2010	평화공원 해밀턴 쇼 제막식	57
2010	평화공원 해밀턴 쇼 제막식	57
2010	수색아파트 모습	72
2010	수색아파트 입구	72
2010	수색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곳	72
2010	수색아파트 수색아파트 복도	73
2010	수색아파트 입구 벽에 걸린 시계	73
2010	형제대장간	76
2010	모래내대장간	76
2010	형제대장간 작업모습	77
2010	모래내대장간 작업모습	77
2010	삼표연탄자리: 메디컬타워에서 바라본	79
2010	삼천리연탄의 흔적	79
2010	삼천리연탄의 흔적	79
2010	동고택시 입구 전경	80
2010	경부교통 차고(1973년부터 증산동에 위치)	80
2010	경부교통 전경(1973년부터 증산동에 위치)	80
2010	증산종합시장 외관	97
2010	메디컬 빌딩에서 바라본 수색동 전경	146

연도	사진명	P
2010	상암동 컨텐츠진흥원에서 바라본 수색동 전경	148
2010	수색로 북가좌동 방향과 수색동	150
2010	메디컬센터에서 바라본 과거 천막동 자리(수색로14길5-3번지)	151
2010	월드컵현대아파트에서 바라본 불광천과 증산동 전경	152
2010	불광천 전경	178
2010	불광천 레인보우다리	185
2010	불광천 전경	185
2010	은평뉴타운 설경	186
2010	30년 넘게 늘 변함없던 놀이터 원집 관형이네	193
2010	진관상회	193
2010	동네에 들어서는 어귀	193
2010	진입로에 자리잡은 종점슈퍼	193
2010	북한산 생태공원 전경	213
2010	북한산 생태공원 전경	213
2010	은평누리축제	234
2011	진관사	15
2011	불광천 미꾸라지 방류 모습	182
2011	은평누리축제	234
2012	응암교회 전경	31
2012	도원극장	103
2012	산새마을 청소모습	219
2013	신응암시장	97
2013	셋이서문학관 한옥단지 전경	200
2013	산새마을 공동체	217
2014	포수마을 만화도서관 개관식	184
2014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개관준비	198
2014	구산동 도서관 마을 기공식	205
2014	산새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기공기념 마을잔치	220
2014	은평누리축제	235
2015	금성당 사랑채	26
2015	금성당	27
2015	금성당	27
2015	불광대장간	74
2015	불광대장간	75
2015	응암3동 대림시장	93
2015	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야외공연장 개관식 및 기념공연	158
2015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	159
2015	셋이서 문학관 전시회 기념행사	200
2015	은평뉴타운 도서관 개관	203
2015	구산동 도서관 마을 준공 전 모습	205
2015	43년간 단절되었던 녹번동-응암동 생태연결로	213
2015	마을재생 및 주민성과로 이루어낸 봉산 도시자연공원 주차장	220
2015	은평누리축제	235
2016	이호철 작가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110
2016	정지용 초당터 표지판 제막식	111
2016	한국문학 속의 은평전	111
2016	김훈 작가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111
2016	한국고전번역원 신청사 기공식	115
2016	한국고전번역원 신청사 기공식	115
2016	롯데몰 은평	191
2016	진관동 한옥마을 북한산 전경	196
2016	기자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Homecoming Day	208
2016	산새텃밭	219
2017	증산동 반홍산 산신제	29
2017	불광천생태학습체험장	184
2017	제6회 불광천 벚꽃 축제	185
2017	진관동 북한산 배경 한옥마을(왼쪽) 은평역사한옥박물관(우)	197
2017	은평구립도서관 전경	202
2017	북한산성 입구 한문화 페스티벌	212
2017	산새마을 전경	216
2017	은평누리축제	235
2018	한국고전번역원 진관동 청사, 2018.8 개관	114
2018	은평문화원 주관 청소년예술제	162
2018	제7회 불광천 벚꽃 축제	185
2018	한옥마을 전경	194
2018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전경	198
2018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전경	199
2018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전경	206
2018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모습	206
2018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개관식	206
2018	증산정보도서관	207
2018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전경	210
2018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전경	211
2018	46년간 단절되었던 서오릉고개-앵봉산 녹지연결로	213
2018	혁신파크 전경	228
2019	금불초가 만개한 수국사 황금법당 풍경	24
2019	불광대장간 서울미래유산	75
2019	선진운수 종점	80
2019	덕신기업	80
2019	1978 대림시장 입구와 같은 곳(태권도장 건물)	94
2019	통일로 파발제	160
2019	늘푸른백일장	162
2019	9기 은평향토문화해설사과정 수료식	163
2019	현재 은평구청 전경	177
2019	너나들이센터 '韓 문화의 봄' 특별전 개막식	200
2019	혁신파크 입구	230
2019	혁신파크 공유동과 연결동	231
2019	혁신파크 내 서울기록원과 50+캠퍼스	231
2019	혁신파크 미래청 전경	230
2019	참여예산 주민총회	232
2019	참여예산 청소년총회	232
	경천군 이해령 사패지 송금비	20
	진관동 산신제	21
	진관동 산신제	21
	진관동 산신제	21
	나창균씨 조모님 회갑연	28
	나창균씨 조부모님	28
	전주이씨 환갑기념촬영(나창균 생가 앞마당)	28
	추석명절 나창균씨댁 제사(단체로 절하는 모습)	28
	증산동 반홍산 산신제 옛모습	29
	반홍산 우물에 대해 설명하는 나창균씨	29
	산골고개 산골 광산 안내판	29
	수색역 공사	32
	수색역 공사	32
	수색역 플랫폼	35
	서부터미널 전경	81
	구파발시장	95
	구파발시장	95
	구파발시장	95
	구파발시장	95
	증산로 15번가길 증산동 골목시장 풍경	97
	수색로 16길 수일시장 입구	98
	수색로 16길 수일시장 풍경	98
	수색로 16길 수일시장 풍경	98
	대림시장 감자국거리	99
	대림시장 감자탕	99
	기자촌 공사현장	109
	한국기자협회 기자촌운영회	109
	현재 불광동성당 전경	128
	은평문화원	162
	은평구 전경	172
	DMC역 정면	175
	현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전경	191
	삼각산 금암미술관 전경	201
	삼각산 금암미술관	201
	1980년도 후반 수색철교	222
	1980년도 이후 수색철교	222
	상암동에서 바라본 수색역과 DMC역 일대 야경	222
	1970년도 이전 수색역을 달리던 미카3 기관차	223
	수색로12가길23 서부교회	224
	수색역전 육교에서 바라 본 남동방향의 서부시가지	224
	은평터널로2길 1번지 수색할머니노인정	224
	수색로 256 수색마트	224
	수색로18길 48번지 집앞 평상에서 담소를 나누는 주민들	225
	수색로 293번지 성광빌딩에서 바라본 수색동 수색로20길 모습	225
	은평터널로1길 6번지 (수색약수터길 4번지) 한전아파트	225
	은평터널길 골목끝에서 바라본 수색동 전경	225
	증산로9길 26-3 증산동경노당	226
	은평터널로 27 수색동주민센터 옛청사	226
	증산로9길4 서울탁주서부연합제조장 전경	227
	문영마운틴 아파트에서 바라본 증산2교	227
	수색역에서 바라본 수색동 전경	226

은평, 그 곳에 살다

개청 40주년
은평구 스토리텔링
사진집

총괄 은평구
㈜정책공방유즈

글 한종수
자문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김시업
은평문화원 사무국장 정영숙
㈔은평상상 부미경
반짝반짝사진방 대표 최영교
디자인 무난한
인쇄제본 대영문화사

발행 은평구
발행일 2019년 9월

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195 은평구청 홍보담당관
전화 02-351-6134
팩스 02-351-5617

ISBN 979-11-954787-2-9

ⓒ 은평구. 2019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동의없이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